

계간 쟁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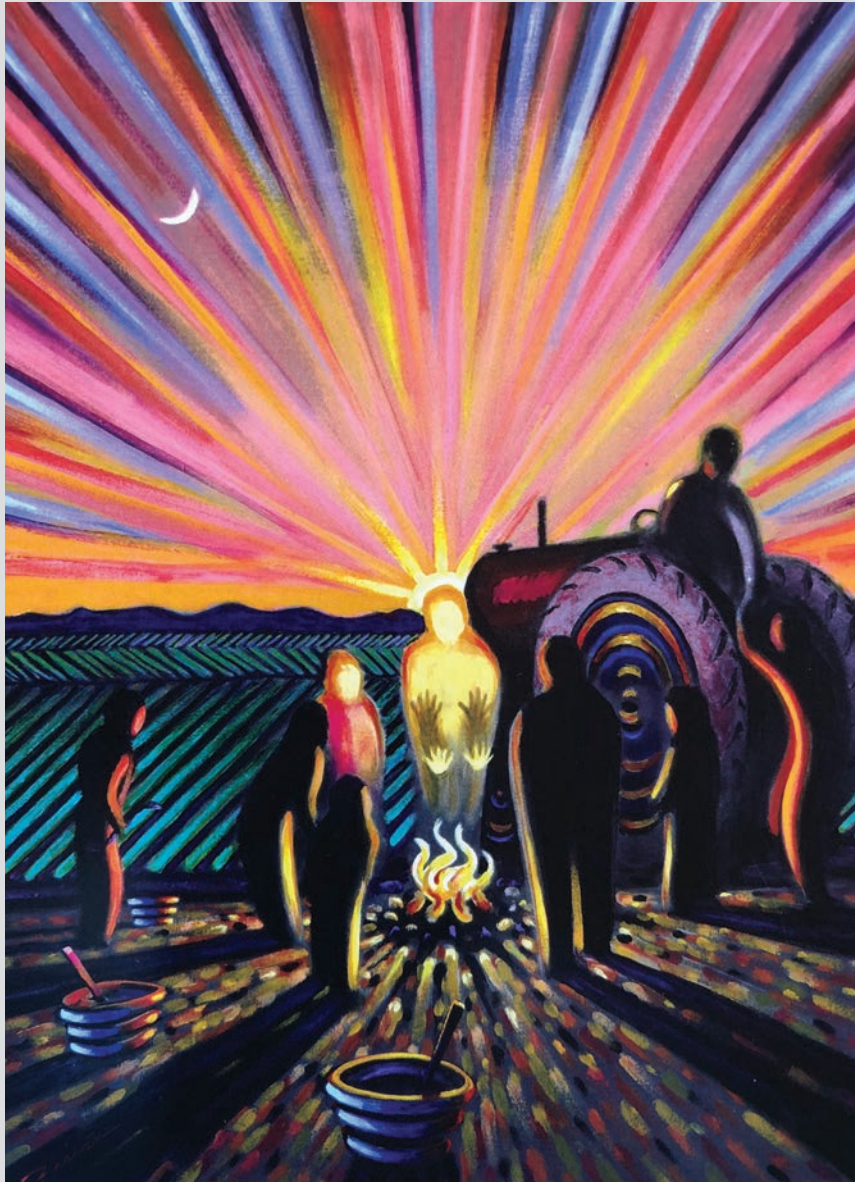
이야기 | 생각 | 문화

겨울 2020


소명 우리는 왜 일하는가



부르심은 선택하는 게 아니다 윌 윌리몬 • 더러운 직업들 마이크 로
플라 레이더 • 장 바니에 • 앙골로스 대주교 • 레이첼 피에 존스 • 마리오 마이어



마크 프리어 일출, 캔버스에 아크릴

마크 프리어는 캘리포니아 산 루이스 오비스포에 사는 농업 화가이다.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을 사용해 이주 농업 노동자들의 삶을 담아 좀처럼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세상을 보여준다. Freeear.com 에서 더 많은 작품을 볼 수 있다. 

계간 쟁기

새로운 세상을 위해 땅을 일군다

겨울 2020, 제4호

편집자의 편지	피터 맘슨	3
독자의 편지		7

특집: 소명

부르심은 선택하는 게 아니다	윌리엄 윌리몬	10
수도자 그리고 순교자	앙겔로스 대주교	22
사랑은 두려움보다 강하나니	레이첼 피에 존스	28
일에 관한 통찰	에버하르트 아놀드	35
	마더 테레사, 도로시 세이어즈	
	리지외의 테레사	
노동	마이크 로 인터뷰	36
용접의 세계로!	마리오 마이어	38
약함의 언어	안 소피 콩스탕	43
성화와 거울	폴라 레이더	47
쟁기책방: 성, 하나님, 결혼	오지니	54
선구자들: 파리의 마더 마리아	제이슨 랜셀	56

아티스트: 딘 밋첼, 마크 프리어, 티모시 존스, 파벨 필립재크, 러셀 베인

계간 쟁기

www.plough.com/ko



계간 <쟁기>를 펴내는 공동체를 만나세요

쟁기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더불어 사는 사람들인 브루더호프가 펴내는 잡지입니다. 브루더호프는 가족과 미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멤버들은 산상수훈의 정신에 따라 철저한 제자도를 실천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묘사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 영감을 받아 사유 재산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평화와 정의, 섬김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며 현재 미국과 영국,

독일, 호주, 파라과이, 한국 등에 있는 농촌과 도시 공동체에서 약 3,000명의 사람들이 어울려 삽니다.

홈페이지: bruderhof.com/ko 

<쟁기>는 일상의 믿음과 행동에 영감을 주는 독창적인 이야기와 생각을 다룹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꾸고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며, 신념은 달라도 공공선을 위해 일하는 다른 이들과 연대하려 합니다.

<쟁기>는 독자들이 글쓴이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연결되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적힌 대로 우리가 "서로 격려해서 사랑과 좋은 일을 하도록" 말입니다. <쟁기>는 편집부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독자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저자의 글을 신중합니다. 기고문은 쟁기의 편집 방향이나 브루더호프 공동체의 입장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피터 말슨, 비어리 홀리엇, 샘 하인, 오지니, 오케빈, 원마루, 번역 위원: 배지영, 전나무, 전남식, 전의우, 조남규, 최성연. 디자인: 로잘린드 스티븐슨, 미리엄 벨러슨, 한국판 디자인: 산위에동네. 관리: 새나 구드윈, 객원 편집자: 모린 스윙어, 수잔나 블랙, 이안 바트.

창간 편집자: 에버하르트 아놀드(1883-1935)

<쟁기> 4호, 소명, 2020년 겨울호(2020년 1월 발행)

독자님들께, 이제 할 걸음마를 하는 계간쟁기를 아껴주시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 년에 네 번 내는 건데도 계절마다 제때 내는 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영어와 독일어판 등과 보조를 맞추지는 못하고 일 년에 두 번씩, 알차게 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호가 아니라 그때의 계절 이름을 붙이겠네요. 아울러 한국적 내용과 목소리도 더 많이 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어판 편집부 드림.

쟁기출판사 발행, isbn 978-0-87486-334-5

Copyright © 2020 by Plough Publishing House. All rights reserved.

표지 그림: 청소노동자, Dean Mitchell 작품, 작가의 허락을 받고 사용. 뒤 표지 그림: 호수의 가을, Russell Bain 사진, 작가의 허락을 받고 사용. 표지 안쪽 그림: 캠프파이어, Mark Freear 작품, 작가의 허락을 받고 사용.

편집부	영국	호주
PO Box 398	Brightling Road	4188 Gwydir Highway
Walden, NY 12586	Robertsbridge	Elsmore, NSW
USA	TN32 5DR	2360 Australia
T: 845.572.3455	T: 01580.883.344	T: 02.6723.2213

<쟁기>는 플라우 출판이 펴내는 간행물입니다.

Plough Publishing House, PO Box 398, Walden, NY 12586, USA.

구독 문의: info@plough.com

쟁기책방:  plough.com/bbang



우리는 왜 일을 하는가

피터 맘슨

독 일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던 나는 지붕수리공들이 입을 작업복을 입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중 몇몇은 흰 셔츠와 여덟 개의 단추가 달린 조끼, 목수용 공구 주머니가 있는 검은 골덴 나팔바지 그리고 이중 지퍼가 한 눈에 보이는 작업복을 8월의 맹렬한 태양 아래에서도 입고 있었다. 지붕을 수리하기 위해 세라믹 타일들을 지붕 위로 올리면서, '어떻게 저 작업복을 입고 일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티셔츠와 청바지만 입은 나에게도 지붕 위에서의 일은 무척이나 더운 일이었고, 그 때문인지 작업은 농담 하나 없이 빠르게 진행됐다.

2004년, 그 당시 신혼이었던 나와 아내는 뉴욕을 떠나 드레스덴으로 도착했고 몇 일이 지나지 않아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는 친구의 집에서 함께 지냈었는데, 마침 그 친구가 백 년은 돼 보이는 자신의 빌라를 리모델링하고 있었다. 나는 지붕 수리하는 분들을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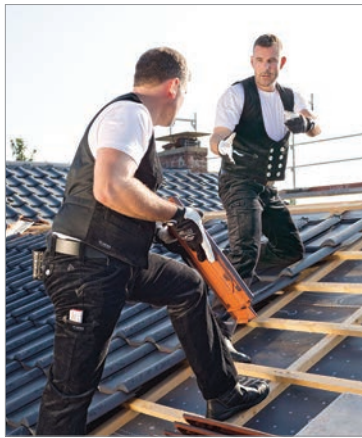
름 동안 도와 드리겠다고 제안했다. 고향에서 보았던 지붕수리 회사를 떠올리며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수리공들이 낮은 임금을 받으며 대충 빨리 끝내는 작업을 생각했다. 예상과는 달리, 나와 일하는 사람들은 명인과 장인, 견습생들이 포함된 가족 기업이었고 지붕수리를 업으로 삼지 않은 사람을 불쌍하게 여겼다. 지붕수리에 관해서 문외한인 사람이 보기에도 제대로 일할 한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함께 작업하는 사람들 사이에 동료애가 넘친다거나 보수가 딱히 높은 것도 아니었다. 그 분야 장인의 임금은 세금 전 시간당 보통 7-8유로, 원화로 계산하면 9천원에서 만원을 받고 일한다고 들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존심과 전통을 걸고 까다로운 기준에 맞추어 힘든 일을 성취해내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그들에게 명예란 임시로 만든 가설 발판을 딛고 땀을 흘리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지 자신들이 짓거나 수리하는 집에 버젓이 사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다. 공사현장에서 만큼은 자본주의의 구조가 얽혀 있었다. 다시 말해, 손님이 아니라 기술공이 왕이었다. 그곳에서는 이중 지퍼가 달린 나팔바지를 입을 만큼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 VIP가 될 수 있었다.

이 지붕수리공들이 생각난 계기는 런던 경제대학의 인류학 교수인 데이비드 그레이버의 최근 저서인 “가치



없는 직업들(Bullshit Jobs)”을 읽으면서였다. 그 책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 중에서 많은 일들을 무의미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2015년 유고브 여론조사에서는 영국인의 37%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세상에 어떤 기여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으며, 또 다른 조사에서는 네덜

란드 노동자의 40%가 자신들의 직업이 있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럼 사회적으로 쓸모 없는 직업들은 과연 무엇일까? 그레이버는 그 직업들 대부분이 행정과 경영, 사무, 서비스 그리고 텔레마케팅과 같은 판매관련 분야의 직업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1910년 전체 고용의 4분의 1에서 2000년 전체 고용의 4분의 3을 차지한 고용시장에서 눈에 띄게 성장한 직업 분야이다. 그레이버는 수십번의 심층 면접을 진행한 후, 자신의 직업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맞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레이버의 전반적인 주장이 맞든 틀리든, 그레이버의 면접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일을 갈망한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2018년 미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9명은 수입이 적더라도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길 원했고, 오직 응답자 20명중 1명만이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현재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연구를 진행한 연구진들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경영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에게 의미 있으면서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 있는 사업을 부여한다면 그들은 더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산업구조 안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에 대해 느끼는 공허함을 설명했는데, 이것이 사무직에 있는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났다. 브라질 쿠리치바의 농부 클라우디오 올리버는 자신이 시작한 도심 농장과 제과점에 매달 수십 명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내게 말했다. 나는 이 브라질 농부에게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물었다. “이런 사람들이예요. 칸막이로 만든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어느 날 문득 사무실 창문 밖으로 조경일을 하는 사람들을 내다보면서 ‘와, 나도 이런 일을 하기보다 차라리 저렇게 잔디 깎는 기계를 운전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젊은 청년들이예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은 몇 주 혹은 몇 달의 휴가를 활용해 채소를 재배하고 염소를 기르며 빵을 만드는 일을 배운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고 농장을 경영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도 한다.

무엇이 우리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지 물으면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은 소명, 즉 ‘부르심’이라고 답한다. 소명이란 종교개혁을 대표하는 가치관들 중 하나로써 각각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자신의 고유한 분야에서 공공의 선을 위해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당신의 부르심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은 오늘날 많은 기독교 작가들과 청소년 사역자들, 인생 멘토들 그리고 컨퍼런스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당연히 당신의 소명은 간호사나 생태여행 가이드, 캘리그래피 디자이너, 선교사, 사회 운동가, 벤처 사업가 혹은 정치가 등 어떤 것이든 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 <렐러번트> 잡지에서는 “부르심이란 하나님에

지붕수리공을 비롯해 독일의 목수들이 입는 검은색 작업복의 기원은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해서 어떤 특정한 것에 마음이 쏠리는 것”이라고 조 언하고 온라인 출판사 〈일의 신학〉에서는 흔히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열정을 쫓으라”고 말한다. 장로교 신학자인 프레드릭 부크너는 1973년 출판된 자신의 저서 “희망사향: 신학의 기초 (Wishful Thinking: A Theological ABC)”에서 같은 말을 좀 더 시적으로 “당신의 진정한 기쁨과 세상의 진정한 필요가 충족되는 자리”로 소명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말들은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달콤하게 들린다. 취업 박람회를 구경하다가 어느 한 부스를 보고 이 일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가슴이 뛰는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이런 거창한 이야기들에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빠져있다.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모델 청소부나 슈퍼마켓 계산원, 콜센터 직원으로 일하지 않듯이 더 열악한 곳에서 저임금으로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일하는 공장 노동자나 농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더더욱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매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선다. 특히 장애와 정신질환 혹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열정을 쫓아 일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소명이라는 것은 오직 재능 있고 고학력을 가진 부유한 사람만을 위한 것인가?

현재 소명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더 깊고 실질적으로 소명을 다루었던 종교개혁의 사상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16세기 마틴 루터는 사도 바울의 성경 구절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전 7:20). 루터는 부르심이라는 단어에 주목하면서 당시 중세교회가 사제들과 수도회의 특별한 부르심으로만 한정 지었던 제약에서 벗어나 더 넓은 의미를 제시했다. 한 사람의 부르심은 다름 아닌 인생에서 자기 자신을 찾은 곳이며 그곳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웃을 사랑하도록 이끄신 곳이라는 것이다. 땀장이, 재단사, 군인, 선원 등의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으며 그렇기에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 자신의 일이 얼마나 천하게 느껴지던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일하시기 위해 택하신 성스러운 부르심이다. 루터는 “하나님은 우유 짜는 여인들의 소명으로 소들의 젖을 짜신다”라고 말했다.

자신의 직업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맞을 수도 있다.

루터의 소명에 대한 해석으로 평범한 소작농들과 기능공들은 자신의 노동에 대한 기존의 사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긍지를 찾게 됐다. 직업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의 흐름은 칼빈을 통해서 더욱 발전되었고 유럽의 많은 부분을 바꾸었다. 사실 막스 베버의 유명한 말처럼 개신교의 강한 직업윤리와 자기 직업에 관한 금욕적이고 철저한 태도가 자본주의를 꽃피우게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이 오늘날 ‘직업’학교에서 영적 훈련 대신 배관이나 용접일을 가르치도록 이끌었다. 그렇기에 여러 나라의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데 직업의 자유를 꼭 필요한 것으로 여기며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에서 볼 때에 내가 드레스덴에서 함께 일했던 골텐 작업복 차림의 독일 지붕 수리공의 자부심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독일이 고향인 루터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은 지붕 수리공의 소명을 통해서 지붕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신교의 직업에 대한 이상적인 소명의식이 어떠한 미덕을 갖고 있든지 그것은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 바로 신약성서의 가르침에 반대되기 때문이다. 루터는 이 결함을 극단적으로, 하지만 분명하게 묘사한다. 루터는 농사일이든 상업이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여겼다. 그리고 한가지 예를 들었는데 만약 교수형 집행자가 부족한 상황이고 당신이 그 일에 적합하다면 그 일을 맡아야 한다고 했다. “그때 칼을 휘둘러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단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다. 교수형을 집행하고 고문하고 목을 베고 죽이고 싸우는 것은 모두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하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며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해석했다.

이런 식의 소명 신학에서는 사형 집행자 또한 예외가 아닌 거다. 하지만 이 주장은 4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정신뿐만 아니라 신약성서 전반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도 상충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현재에 안주하며 루터의 견해를 따르길 원한다

영어 성경으로 소명이나 부르심을 번역한 단어들을 살펴보면 신약의 저자들이 일어나는 특정한 일이 직업을 나타내기 위해 그러한 단어들을 사용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윌 윌리몬이 설명했듯이 (10쪽 참조) 신약에서 말하는 소명은 오직 한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도이다. 제자도란 단지 어부로서 혹은 세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아닌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집과 땅을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제자도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열망하는 것들을 희생하라고 요구한다. 본회퍼는 “그리스도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내게로 와 죽으라고 명하신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소명에 관한 정의는 사람들에게 그다지 인기가 없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어떤 모순이 있더라도 현재에 안주하며 루터의 견해를 따르길 원한다. 다른 이들이 삶 속에서 허망함과 아픔을 느끼고, 부당한 사회 안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며 일할 때 우리는 늘 그렇듯 원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안심시키며 기독교적 진정제를 그들에게 준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현재에 안주하는 것을 폐하려 하셨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계 21:5). 그리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온전한 사랑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더불어 사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자본주의 너머’라는 제목으로 2019년 여름에 발간된 계간 <쟁기>에서 데이빗 벤틀리 하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사회적, 정치적 혹은 경제적 체제를 소망하거나 갈망하는 것이 아닌 오직 초대교회가 누렸던 코이노니아를 바라는 사람들

로서 그 어떤 도덕률보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이들이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 ‘자본주의 너머’에서 다루었던 주제를 근간으로 진정한 소명의 의미를 살아내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의 출중한 면도 연약한 부분임을 기꺼이 인정하며 살았던 캐나다의 윤리철학자 장 바니에(43쪽 참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평생을 헌신한 콧트 대주교 앙겔로스(22쪽 참조),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에서 결핵 치료를 개척한 이탈리아의 인도주의자 아날레나 토넬리(28쪽 참조). 우리는 이들을 통해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을 바로 볼 수 있다

이들의 이야기가 주는 또 다른 교훈은 바로 진정한 소명을 따라 살 때 자신이 택한 길보다 더 큰 기쁨을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 쓸모 없다고 생각하면서 또한 자기 자신도 쓸모 없다고 여기지만, 사실 우리의 존재는 높은 수준의 의미와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다. “가장 단순한 것은 모든 것을 거는 것”이라는 T.S.엘리엇의 유명한 말처럼 우리의 삶은 창조 목적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을 만한 가치가 있다.

Peter

편집자 피터 맘슨

독자의 편지

편집자에게 온 편지

자본주의 너머의 삶

계간 쟁기 3호, '자본주의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를 읽고: 지난 호는 정말 기간 나온 것 중 최고였다. 지난 호처럼 <계간 쟁기>가 용기 있는 소리를 낸다면 우리 세대에 가장 흥미롭고 진정한 기독교 외침이 될 것이다.

미국 인디애나 블루밍턴에서 로스 아이러
(가톨릭 노동자회)

피터 맘슨의 "사랑의 경제학"을 읽고: 지난 호는 패역한 광야에서 맘슨을 대항해 힘차게 외치는 예언자 목소리 같았다. 감사를 표한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긴장을 두 글에서 발견했다. 하나는 맘슨이 편집자의 편지 서두에서 종교적 사회 정치 참여(integralism)를 일축하며 "국가의 강압적인 수단을 통해서 공공의 선을 확보하려고 하는 시도들 뒤에 숨은 부정적인 영향"을 언급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데이빗 벤틀리 하트가 제기한 "작은 공동체들이 일정한 기독교 집단주의 형태로 헌신적인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것은 아주 좋다고 본다... 그러나 더 큰 정치 질서로부터 고립된 동시에 의존해 있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 이상적 기독교 정치를 제대로 실현하는 것인 양 오인될 때는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이다.

우리 같은 가톨릭 인테그랄리스트(정치와 삶이 따로일 수 없다고 생각)와 급진적 배분주의자들은 공동체를 꾸꾸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선을 이루며 풀뿌리 정치 운동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꽃피우며 지속하는지 정말 관심이 많다. 브루더호프는 공동체를 꾸꾸는 많은 가톨릭인들에게 영감을 준다. 우리 가톨릭의 사회참여 지침도 모든 이들에게 공동선을 펼치는 일에 섬김을 다하길 바란다.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정치와 자유주의와 기독교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들을 당연히 받게 마련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쟁기가 이런 주제에 대해 중요한 통찰을 던질 것이라 믿는다.

우리는 또한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며 살아가는지, 어

떻게 재정을 조화롭게 운용하는지, 자원은 어떻게 배분하는지, 일과 문제 해결,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에 관해 궁금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세상에 사는 수많은 교회 회중과 가족들이 돈에 종속되어 경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이 새롭게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지, 이런 일이 상상이나 가능한 것인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다.

앞으로 계속 나올 계간쟁기가 자본주의를 뛰넘는 기독교인의 문화·경제·정치를 폭넓게 상상할 수 있도록 돕기를 기대한다. 여러분의 수고가 정말 가치 있다는 말을 더 하며.

미국 펜실베이니아 랭캐스터에서 토마스 핵켓
(Tradistae 네트워크 공동대표)

피터 맘슨이 쓴 편집자의 편지는 황량한 이분법을 주장한다. '국가의 강압적인 수단을 통해서 공공의 선을 확보하려고 하는 시도들'과 순전히 자발적인 '형제애 공동체'의 급진적 종교개혁 모델을 대조한다. 맘슨은 사회주의 정책이 강압으로 이어질 거라 염려하면서 자본주의가 저지르는 '공적 죄'에 대한 기독교인의 정치참여를 경고한다.

맘슨의 자본주의에 대한 고발은 웅변적이고, 그가 묘사한 브루더호프 삶은 대단히 흥미로워도 그의 이분법은 아쉽게도 기독교와 사회주의 사이에 접합점을 놓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성경의 시내산 언약에서 시작해 초대 교회의 삶을 살펴보면 교회공동체의 멤버가 된다는 건 선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선택 받았음을 의미한다. 자발성은 반쪽 이야기인 것이다. 즉 우리는 빛진 자, 종속된 자로 태어나도록 선택한 것이 아니며, 주위 사람들과 서로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걸 거부할 수 있지 않다.

강제성(coercion)과 자발성(voluntarism)의 이분법을 넘어 성경 본문과 유대교, 기독교 전통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와 "다른 사람들 (혹은 다른 사람)이 행하는" 것 사이의 범위가 불명확함을 밝힌다. 즉, 공동체 동화에 성공하는 것, 전통을 재해석하는 것, 공동체 멤버들 간에 상호

편집자에게 보내주시는 편지를 환영합니다. 편지와 웹에 올라간 댓글은 적당한 분량과 명확성을 위해 편집될 수 있으며 다른 매체에 게시될 수 있습니다. 성함과 주소도 함께 적어 letters@plough.com로 보내주세요.



적 이해를 이루는 것 말이다. 이와 같은 불명확함에서 오히려 우리 시대가 민주주의라고 부르는(민주사회주의에 대한 희망과 더불어) 인류 공동체의 가능성이 엿보인다. 정치는 강압의 유사어일 필요가 없다. 만약 브루더호프같이 자발적이며 급진적인 나눔의 삶이 맘슨이 말한 '다른 삶'의 한 증거가 된다면, 마찬가지로 일상에서 벌어지는 민주사회주의자들의 정치 선동과 조직도 같은 삶이지만 다른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뉴욕 브룩클린에서 제프리 커츠

편집자의 답변: 제프리 커츠와 토마스 핵켓의 통찰력 있는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봄호에서 정치와 신앙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입니다.

시장은 도덕적일 수 있는가?

2019년 여름호에서 데이빗 벤틀리 하트가 쓴 “자본주의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를 읽고: 창조주와 인류와 환경을 무시한 경제학의 비도덕성에 접근을 시도한 하트의 강경한 비판에 감사를 표한다. 그렇지만 하트의 분석이 자본주의 아버지라 불리며 자본주의 비도덕성을 거부한 아담 스미스를 의미있게 분석했는지는 의문이다. 사실 국부론에 대한 논쟁은 한때 공정 가격 같은 경제학 문제의 기독교적 처방에 의존하기도 했다. 스미스는 자본가가 공급을 제한하며 가격을 높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도덕하다고 했다. 스미스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도덕 프로젝트이다.

용어는 제쳐 두더라도 하트는 오늘날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않았다. 자본주의의 물질주의를 거부하면서 그는 물질세계의 현실을 다 못보고 천상에 머물고 만다.

하트는 우리 경제 질서 안에 만발한 억제되지 않은 욕망을 오히려 지적하며, 자본주의 모순, 즉 무한한 욕망과 유한한 자원이 결합하여 모든 것을 소비해 버릴 거라 본다. 단순히 제한을 두는 걸 넘어서 우리 진정한

목적에 맞게 우리 소비를 감독함으로 근본적으로 경제교류 개혁을 이루므로 우리 욕망의 방향이 바뀌길 바랄 뿐이다. 대신, 하트는 우리 경제질서의 우발적인 특징, 즉 상품에 대한 억제할 수 없는 갈증을 중요히 다루면서 경제 상품을 어떻게 배분하는 문제와 물질적 한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는다.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극도로 관대하면서 자기 가족과 이웃을 등한시하는 것도 불의다. 마찬가지로 타인에 대한 의무에 나 몰라라 하는 무정부적 태도도 덕이 아니라 악이다. 소유적 개인주의 세상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유한성과 씨름해야 한다.

하트는 “그리스도 몸의 코이노니아는 나란히 놓인 그럴듯하고 비슷한 것들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를 일깨운다. 그리스도는 만인의 주님이시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 존재의 실체성을 고려한다면 사회 질서를 균일화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다양한 사회 구성원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우리는 교회를 이러한 다른 사회 수준으로 축소하는 대신에 온 세상이 교회가 아니며 온 세상이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추론일 뿐이다. 공산주의는 가정이나 교회에 잘 어울릴 수는 있어도 그밖에 적용하는 것은 억지라는 생각이 든다.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에서 존 부크만

노동운동이 필요한 이유

2019년 여름호 마리아 헨지펠트의 “워킹 걸”을 읽고: 비록 헨지펠트가 나이키와 베트남 여성고용 문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그 주장은 값싼 노동력과 노동법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들을 찾는 대부분의 미국 및 서구 회사들에게 적용된다. 완성도 높은 연구와 글에 감사를 표한다. 하지만, 지적하고 싶은 몇 가지 사항이 있다.

헨지펠트는 “나쁜 일자리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이 종종 “제품과 이윤을 창출하는 환경”을 조성하며 착취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다고 한다. 물론 그런 식의



로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나 일부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생각은 객관적으로 사실이다. 나는 이민자로 열네 살부터 일을 했다. 우리 가족이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부모님은 정확히 '나쁜 일자리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는 이유로 그들의 교육에 못미치는 직업을 택하셨다. 나도 열네 살 때 받은 3달러 35센트에 불평하지 않았다. 같은 이유로 나는 최저임금을 받아 들었다.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일자리를 잡기 위해 적은 돈이라도 열악한 근무 조건도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이다. 직업 때문에 가족이 분리되는 일도 포함해서 말이다. 내가 이민에 관한 책을 쓰기 위해 인터뷰한 여성은 지역 이라크인들을 고용하는 대신에 방글라데시 직원들을 바스라에 있는 석유 시추 시설로 데려온 서구 석유 회사들에 대해 말했다.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은 적은 임금을 받았고, 일자리를 위해 가족을 고향에 남겨 두고 왔다. 이 여성은 또한 두바이에서 몇 년 동안 살면서 많은 경제 이주자들이 겪은 인간적 고통을 목도했다.

가난한 나라의 빈자들은 부유한 나라의 부자들보다 노동 급여를 덜 받지만, 그들 봉급이 지역적인 생활비를 충족시킨다면 이것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길만이 전부인 듯이 안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것은 또한 우리 소비 문화를 전하는 데도 적용된다. 재물이 더 가난한 곳으로 흘러 들어가면 다행이지만, 이것이 사업을 하는 서구 기업들만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가난한 나라들은 자기 나라 안에서 자기 손으로 자신의 제품들을 만들어 수출하고 다른 나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도울 때 힘을 낼 것이다.

우리가 티셔츠와 운동화에 지불하는 돈 대부분이 다른 주머니가 아니라 지역민과 노동자들 주머니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과 노동 가치만 축출하고 노동자 보상은 노동자 주머니에 도착할 때쯤이면 사라질 거라는 글쓴이의 염려는 타당하다. 그러므로 전 세계적으로

로 강력한 윤리적 노동운동이 필수적인 이유다.

여기 미국 노동운동은 과거에 비해 꺾테기에 불과하다. 나는 노동운동이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물건보다 인간이 더 소중해질 때 가능한 일이다.

애리조나 주 피닉스에서 루마 심스

한국에서 온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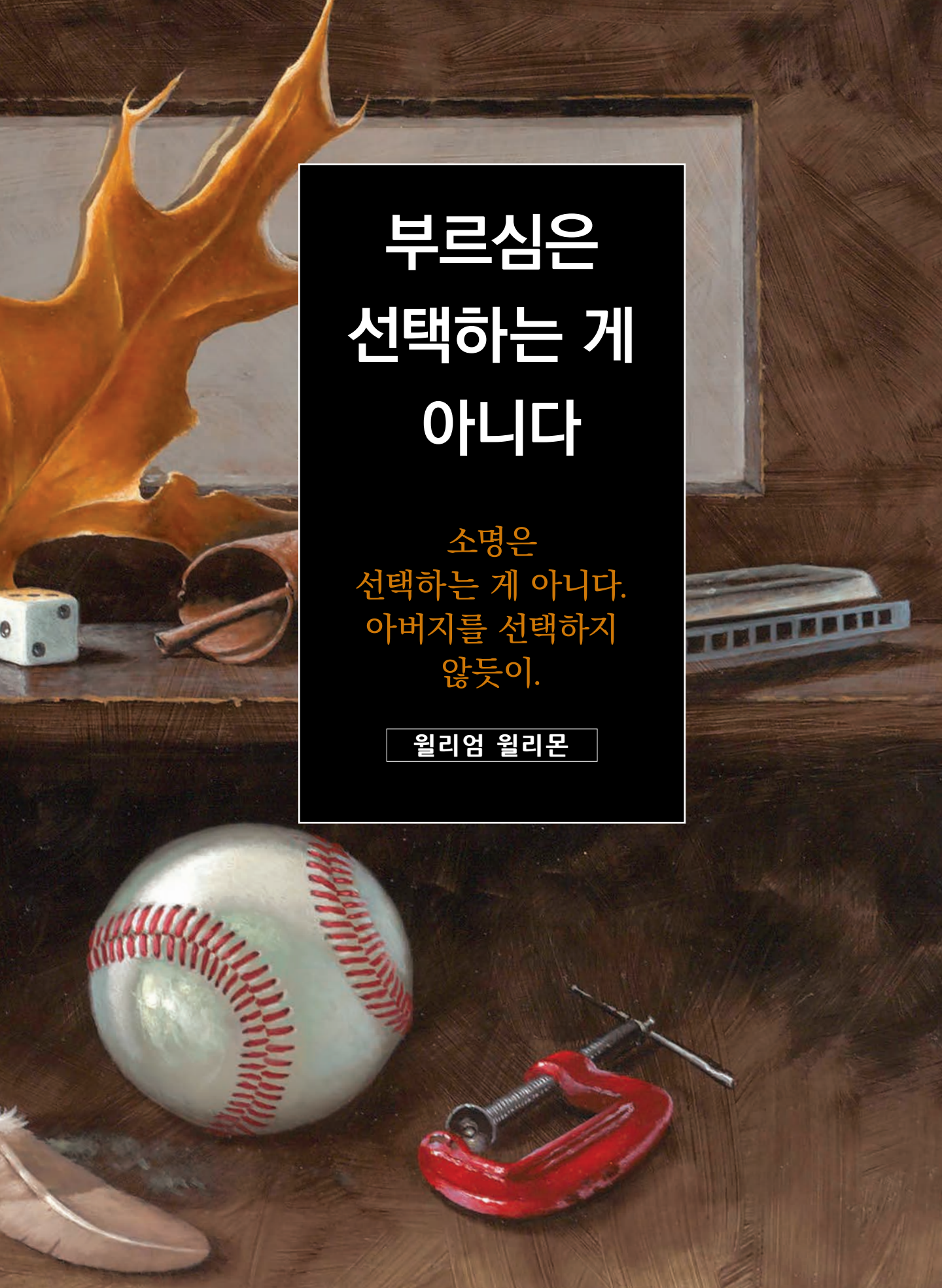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가을이 깊어가는 11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국 내에서도 끊임없이 삶의 질곡들 속에 갈등과 다툼이 이어지며 상처받고 아파하며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최근 영국으로 들어가려고 냉동차에 몸을 내 맡기고 생존의 길을 찾아보려다가 모두 생을 마감한 젊은 청년들의 가슴 아픈 비보를 접하면서 지구촌을 병들어가게 하는 자본주의의 민낯이 무섭기만 하지요.

세상을 걱정하고 기도하며 발간하셨을 계간 쟁기 저도 한부 받아보고 싶습니다.

두루 건강과 평화를 빌며 오랜만에 안부전합니다.

광주 수도원에서 노헤레나 수녀



부르심은 선택하는 게 아니다

소명은
선택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를 선택하지
않듯이.

윌리엄 윌리몬

윌리몬 가족이 주일 저녁식탁에서 절대 입 밖에 내지 않는 중요한 이야기 중에 당혹스런 내 아버지 얘기도 있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네 아버지 어디 계시니?”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이것이 어머니의 가장 자세한 대답이었다. “그냥 네 아버지는 여기 살지 않는다고 하더라.” 다행이었다. 내 계도 아버지가 있었다. 나는 기억을 더듬어 파편들을 찾아냈다. 어떤 남자의 무릎에 올라가 그가 파이프에 담배를 채우던 모습을 지켜보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 남자가 수염을 굽던 장면도 떠올랐다. 담뱃대를 든 남자를 따라 스킨톤 씨 가게에 갔던 일도 떠올랐다. 그 남자는 냉장고에서 차갑고 ‘시커먼 물’ 한 병을 꺼내 내게 건네주었다. 그때 누군가 그에게 물었다. “밥, 손자한테 코카콜라 사 주려고?”

내게 음료수를 건넨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닥쳐. 내 아들이라고!”

그게 전부였다.

거실 선반에 담배상자와 파이프가 있었다. “저거 아 빠 거예요?” 내가 물었다.

“그래.” 내가 들은 대답은 이게 전부였다. 호박색 담배통에 코를 박고 쿵쿵거리는 게 아버지의 존재를 감각으로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 었다.

어느 날, 혼자, 열지 말아야 할 서랍을 뒤지다가 애틀랜타의 어느 교도소 소장이 보낸 편지를 발견했다. “관계자에게: 로버트 C. 윌리몬의 수형생활은 모 범적입니다.” 나는 전과자 아버지의 성공에 어떻게 부합할 것인가?

나는 휴스 중학교 학생회장이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학부모 모임에서 발표를 했다. <그린빌 뉴스> 편집자가 나중에 다가와 말했다. “윌리몬 집안의 말재주

를 물려받았구나! 그런데 아빠가 누구니? 찰스, 아니면 진?”

나는 침을 삼키며 대답했다. “제 아버지는 로버트예요.”

“농담이겠지? 밥(로버트의 별칭)에게 너같이 어린 아들이 있다는 얘긴 못 들었는데.”

그는 허리를 숙이며 속삭였다. “밥은 목사를 꼬드겨 십계명이라도 범하게 할 수 있는 위인이지. 그 잡놈이 나를 꼬드겨 만 달러를 뜯어냈다고. 그러곤 이 동네를 뺐지.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어.” 또 하나의 직업이, 은행업이 내게 영원히 닫혔다.

“그래도 너한테 해 줄 얘기가 있다.” 그가 말을 이었다. “네 애비가 저 문으로 들어와 ‘빌, 만 달러만 투자하게. 자네를 부자로 만들어 줄 멋진 계획이 있네!’라고 한다면, 난 수표책을 꺼낼 거야. 세상에, 그 사람, 말 하 나는 끝내줬거든!”

“내 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사 6: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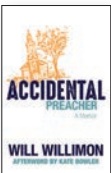
감리교인들은 이 구절을 끔찍이 좋아했다. 1981년 예수회 소속 댄 슈트(Dane Shutte)가 썼고 이른바 감리교의 국가가 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Here I Am, Lord)라는 찬송이 이 구절에서 나왔다. 감리교인들은 대부분 이 찬송을 2절까지 다 부르기도 전에 줄루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자원하거나 적어도 감상적인 눈물을 흘린다. 이 찬송의 후렴 부분은 이렇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찾지 않으셨나요? 제가 밤에 당신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주님, 주님이 저를 인도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제가...”

주목하라. 1인칭 대명사가 압도적이며, 그래서 소명

앞 장의 그림: 티모시 존스, 별난 스튜디오



연필 스케치는 모두 지은 이의 것임



윌리엄 윌리몬(Rev. Dr. William H. Willimon)은 듀크대학 교목을 지냈으며, 이 글의 원 출처인 “어쩌다 목사: 회고록”(Accidental Preacher: Memoir, Eerdmans, 2019)를 비롯해 많은 책을 냈다. 작가의 허락을 받고 사용.

이 자원으로 전략한다. 과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달달한 곡조에 휩쓸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지 의문이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지나치게 고양된 우리의 주관적 느낌을 바로잡는 도움을 실제로 받아들이려 하겠는가?

소명(vocation), 하나님께 부름을 받음이란 더는 좀체 사용되지 않는 용어다.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말했다. “소명은 영을 깨운다...그래서 내부로부터 오는 꿈과 예감 대신, 부르심이 외부로부터 오며,” 외부의 관

을, 자신이 뜻하시는 시간만큼만 빌려주신다.

온갖 거짓말이 우리의 부수성(contingency)과 의존성(dependency)이란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자기 창조(self-invention)의 신화가 우리에게 50가지 피자를 팔고 400개 TV 채널을 제공하는 시장을 인수하고, 그 결과로 생겨난 황무지를 “자유”라 부른다.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렇게 손쉽게 얻는 자유를 누리면서도 삶이란 살만하다는 생각을 지금처럼 거의 하지 못하고 스스로 좋은 삶을 선택하지도 못하는 때가 없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렇게 손쉽게 얻는 자유를 누리면서도 삶이란 살만하다는 생각을 지금처럼 거의 하지 못하는 때가 없었다.

계가 “나타나 자신을 드러낸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란 자신의 선택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신만의 소유라는 허구를 믿도록 교육받았고, 그래서 부르심은 선택하는 게 아니라(unchosen calling)는 개념이 이상해 보인다.

“나는 누구인가?” 또는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이 질문은 널리 알려진 개인주의 신조를 한결같이 불러 일으킨다. 나는 내가 만들었고, 자율적이며, 나의 소유이며, 나의 빈틈없는 선택 및 나보다 중요한 그 누구와도 무관한 나의 영웅적 행동의 총합이라는 것이다. 나는 내가 자유롭게 동의한 것 외에 그 어떤 주장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내 운명의 선장이며, 내 영혼의 주인이고, 내 이야기의 저자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이 우리를 배치하시는 하나님보다 재미없다는 비미국적 확신을 내세운다. 아퀴나스의 말을 조금 바꾸어 표현하자면, 우리는 부수적 피조물이다. 우리는 해가 아니라 달이다. 우리의 빛은 파생적이며, 세상의 빛을 받아서 되비춘다. 흠에 생명을 불어넣는 놀라운 생각을 하신 하나님이(창 2:7) 호흡

어거스틴은 우리 인간이 사랑하는 프로메테우스적 선택의 자유라는 것이 한갓 달가닥거리는 우리의 사슬, 곧 우리의 주인을 정직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이 욕망의 시장에서, 우리의 운명은 끝이 없고 절대로 만족을 모르는 소비다. 나는 자신에게 말한다. 내가 가장 고압적인 주인 곧 나 자신의 노예임을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내게 외부의 주인은 없다고.

현대는 우리가 누구인지 정의하는 이야기를 쓰라고, 가능한 다양한 줄거리 가운데 하나를 영웅적으로 선택해 쓰라고 우리를 다그친다.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정의하는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우연적이며(accidental) 외부에서 부가된다고 믿는다. 문제는 “내가 나를 가지고 어떻게 하길 원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느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느냐?”이다.

이제 나를 발견하신 하나님을 내가 발견한 이야기를 하겠다.

대학 2학년 때 유럽으로 꿈의 여행이란

걸 떠났다(계획은 24시간 내내 흥청망청 퍼마시며 세 달을 보내는 것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행을 낚아채 코미디 같은 소명극을 만드셨다. 1966년 한 여름 즈음, 우리는 하늘색 폭스바겐 비틀(나치가 볼프스부르크에 세운 공장에서 구매했다)을 타고 암스테르담에 도착했다. 친구들이 죄를 모르는 암스테르담을 돌아보는 동안, 나는 레이 크스 국립미술관을 찾아가 전에 콘스탄스 아미티즈의 미술사 101에서 슬라이드로만 봤던 그림들 앞에 섰다. 우수에 찬 렘브란트의 초상화 앞에서 생각에 잠겼다가 그림이 너무 생생해 고개를 돌려야 했다. 오른쪽에서 나이 든 남자가 반 로이스달의 작품을 뚫어져라 쳐다

“유럽에는 설교하러 오셨습니까?” 내가 물었다.

“유대인을 되찾으러 왔네.” 그가 손가락으로 내 가슴을 누르며 말했다. “닷새 동안 회당 여덟 곳을 둘러본다네. 내 깨끗한 그리스도인의 코를 할레받은 자들의 재에 부비며 말일세.”

매우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자네는? 왜 여기 왔는가?” 그가 물었다.

“저요? 그냥 친구들과하고 유럽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자나 피서 재미나게 놀려고요.”

“자네, 나를 바보로 아나? 내가 목사 짬밥이 얼마지 아나? 이제 누구라도 거짓말을 하면 단박에 알

나는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다.

보고 있었다. 웬지 낯이 익었다. 하지만 멀고 낯선 땅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 있겠는가?

마니 박사였다! 회색 수염을 한 주 정도 안 깎은 상태였으나 틀림없었다. 칼라일 마니(Carlyle Marney, 1916-1987, 침례교 목사이자 교수)였다. 6개월 전, 마니(그는 이렇게 불리길 더 좋아했다)는 와포드 칼리지의 연례 종교주간에 강사로 왔다. 그는 하나님이 널 법한 굶은 목소리로, 마치 아웨가 테네시 출신의 침례교인인 것처럼 설교했다. 그는 설교 중에도 육두문자를 썼고, 조금 지나친 말들을 던져 나 같은 2학년들을 열광시켰다. 그가 했던 설교들의 내용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풀밭에서 놀다가 그가 휘파람을 불면 머리를 돌렸다는 그의 말 이야기는 기억난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은유였던가?

나는 머뭇거리며 다가가 물었다. “마니 박사님 아니세요?”

“자네 대체 누군가?” 그는 나를 위아래로 뻗어 훑어보며 되물었다.

“지난봄 와포드에 오셔서 설교하셨죠? 그 학교 학생입니다.”

마니는 그 자리에 선 채 나를 감정했다.

정도는 뵈었다네.”

“그러시군요. 그럼 제가 왜 여기 왔는지 통 모르겠습시다.” 내가 더듬대며 말했다.

“좋아! 자네 뭔가 좀 터득한 거 같네. 우나무노(Unamuno, 1864-1936, 스페인 철학자, 시인)가 그랬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게 삶의 시작이라고. 도와줄까?”

그가 내 팔을 움켜잡았다. “이곳 네덜란드 사람들이 내가 한 나절에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를 일러주었다네. 그래서 난 한 잔 해야겠는데, 자네는 어떤가?”

마니 박사는 나를 이끌고 계단을 내려가 정문으로 나가더니 미술관 밖에 자리한 첫째 술집으로 들어갔다.

“여기, 버번 좀 주게!” 그가 어둡하고 담배연기 자욱한 바 너머에서 있는 웨이터에게 말했다. “굳이 좋은 버번은 필요 없네. 이 친구는 그 차이를 모르고, 난 이렇게 먼 곳에서 그리 좋은 위스키를 기대하지 않네. 스트레이트로 두 잔 주게.”

나는 마니 교수가 담배 파이프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흥분했다. 나는 결국 위험한 곳에 끌려와 있었다.

그가 첫 잔을 비운 후 말했다. “이제 술도 좀 들어갔

졌다. 얘기할 준비는 됐겠지? 허튼 소리는 집어치우고, 누가 자네를 여기 데려왔는가? 자네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뭔가?”

교수는 달콤한 냄새가 나는 담배를 파이프에 밀어 넣기 시작했다.

“음, 그냥 유럽 구경하러 왔습니다. 유럽은 처음입니다. 미술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건 자네가 시작한 걸세.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한판 하려 할 때 자네가 불쑥 밀고 들어온 걸세.” 마니 박사가 비난하듯 증얼거리더니 의자 깊숙이 몸을 밀어 넣고 마치 쓸데없는 얘기만 들었다는 듯 눈을 감았다.

“교수님이 와포드에서 설교하실 때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을 비로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면 신학교를 시험 삼아 1년을 다녀보도록 록펠러 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을 신청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나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마니 박사는 마치 마침내 나를 이해했다는 듯 싱긋 웃었다. “이보게, 인생이란 독백이 아니라 대화일세.” 나는 공부하지 않은 시험문제를 받아든 것처럼 정신이 깜깜해졌다.

“제가 신학교를 생각했었다는 게 정말 불편해요. 미친 짓 같습니다.” 내가 초조하게 말했다.

“왜 미친 짓이지?” 마니 박사가 바 건너편을 응시하고 무관심한 척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물었다.

나는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저희를 떠났죠. 제가...”

마니 박사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만하게. 자네 아버지는 도망쳤을 수도, 죽었을 수도, 의절했을 수도 있



네. 하지만 누구에게나 이런 저런 아버지가 있지. 자네는 나가 다른 아버지를 찾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가? 게다가, 자네가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게 여기 온 이유가 되겠는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일세.”

우리 사이에 테이블이 있는 게 고마웠다. 나는 불쑥 내뱉었다. “저는 대학 시절부터 줄곧 프로이드를 읽었고, ‘어찌면 내가 하나님에 뜻한 게 아버지 없이 자란 것에 대한 보상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면, 희망 사항이 이뤄진 거죠.”

“아마도.” 마니 박사가 히죽 웃으며 말했다.

“하나님에 대한 제 생각은 교도소의 아버지에 대한 심리적 반발일 뿐입니다.”

티모시 존스,
조용한 음악



티모시
존스,
나무상자

“이보게.” 마니 박사가 담배 파이프를 옆에 내려놓고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내게 바투 다가오며 마치 나를 붙잡고 분명한 것을 설명해야 하는 것처럼 말했다. “이보게, 하나님은 손에 잡히면 어느 핸들이든 사용하실 걸세.”

너무 오래 침묵이 흘렀다. 드디어 내가 물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난장판이 되어버린 제 배경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니 박사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이보게, 하나님은 그 어떤 배배 꼬인 배경도, 비뚤어진 아버지도, 영악한 어머니도 사용하실 걸세. 제발 성경 좀 읽게! 맹세컨대, 내가 아는 한 한 푼어치라도 가치 있는 목사치고 골치 아픈 어머니나 아버지 문제가 없었던 사람은 하나도 없네. 하나님은 어느 쪽이든 사용하실 수 있네. 축하하네. 그래도 자네는 한 쪽만 문제이지 않

은가 말일세. 하나님이 자네를 사용하실 걸세.”

“그럼. 확신컨대, 하나님이 자네 이름을 따로 적어 놓으셨을 걸세. 내가 이런 얘기 듣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닐세. 자네는 절대 특별한 경우가 아닐세. 하나님의 지문은 어디에나 있네. 자네, 나하고 한 잔 더 할 시간 되겠나?” 그가 빈 잔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보게, 멧쟁이 웨이터.” 그가 웨이터를 향해 소리쳤다. “이번에도 얼음 넣지 말고 주게. 내 제자는 스트레이트를 좋아하네. 웨이터, 버번 한 잔 더 주게(Garçon, encore bourbon)!”

등트기 전, 나는 친구 셋이서 빌린 하루 8달러짜리 싸구려 수도원 골방에 깔린 지저분한 매트리스에서 뒤척였다. 복도 저 끝 공동 화장실에서 학생이 토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나는 하나님이 바울의 눈을 멀게 하셨을 때 바울이 기도하

며 했을 게 틀림없을 말을 했다. 왜 다른 사람을 부르지 않으시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는 거냐고요? 나는 감리교 목사가 되고 싶지 않다고요.

그 날 밤 암스테르담에서 우연하고 처음에는 초라했지만 마침내 행복한 삶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삶이 아니며, 부르심을 받았고 나 아닌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며 외부에서 부가된 주장에 답해야 하는 삶이 시작되었다. 키트 보니컷(Kurt Vonnegut, 1922-2007, 미국 소설가)이 말했듯이, “모자를 벗지 말라. 아직도 수마일을 더 가야 할 테니까!”

고등학교 시절, 어느 날 밤, 고모한테 집안 규정을 어기고 “아버지 얘기해주세요!”라고 졸랐다.

다음은 고모가 들려준 이야기다. 나의 누나와 형이 어릴 때, 아버지가 금융사기를 쳤거나, 은행을 털었거나, 둘 다였다.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렵다. 당시, 아버지는 그린빌 역사상 어느 누구보다 안 값은 돈이 많았다. 아버지가 운영한 도로건설회사 그린빌 픽킨스 스피드웨이가 망했고 기막힌 십여 개 아이디어도 물거품이 되었다. 아버지는 애틀랜타 연방 교도소에, 또는 어찌면 인디애나 연방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상황을 다르게 다루었다. 한 가족의 품위는 허구라도 가차 없이 보존되어야 했다. 어른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도, 한 아이에게 짐을 지우기에는 너무나 불쾌한 몇 가지를 언급하지 않는 자신들의 능력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이들의 애매함은 나의 에텐에 큰 빈 자리를 남겼다.

나는 스물두 살이었고, 롤리에서 열리는 가족 결혼식에 참석 중이었다. 그때 우리가 모여 있는 모텔 방에 엘리스 고모가 들어와 내게 물었다. “아버지 만나고 싶니?”

하나님께서 뭔가를 만들기 좋아하신다는 걸 알아서 얼마나 다행인가?

당신이 바닥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이 모든 일에도,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았고 아버지가 돌아오길 기다렸다. 아버지는 교도소에서 나와 월리몬 가정으로 돌아왔다. 아홉 달 후, 아버지와 어머니가 40대였는데도, 내가 태어났다. 그런데 아버지는 못된 버릇이 되살아났고 결국 수습할 수 없는 범 죄를 저질렀다. 어느 일요일, 가족회의가 열렸고, 아버지가 떠나는 게 모두에게 낫겠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떠난다고?

어머니도 친척들이 나를 비롯한 자식들을(누나와 형들 다 나보다 열 살은 더 많았다) 돌볼 거라는 말을 들은 후 아버지가 떠나는 데 동의했다. 아버지는 유언장에서 제외되었고 버드 형과 해리엇 누나와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300에이커를 물려받았다. 어머니의 유일한 조건은 “이 어린아이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자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모두 이 약속을 지켰다.

물론, 모두가 카슨 맥컬러스(carson McCullers),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 또는 심지어 유도라 웰티(Eudora Welty) 같은 미국의 여류 소설가에게 어울리는 불합리하고 어둡고 송고한 포크너적인 남부 고딕(Fauknerian Southern Gothic, 초자연적이고 반어적이며 평범하지 않은 사건들이 즐거움을 이끌어가는 미국 소설의 하위 장르. -편집자)이

“예, 그런 거 같아요.”

고모는 옆방으로 나를 데려갔고, 한 노인이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인사를 건넸다. 우리는 악수를 했다. 내가 본 것은 먼 사촌을 만났을 때만큼의 느낌밖에 없는 나이든 친척이 전부였다.

“네가 혼자 잘 해 왔다고 들었다.” 그는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듣자하니, 돈도 잘 번다고 하더구나.” 사람들은 구워삶아 돈을 잘 내게 한다며! 아들이, 내가 자랑스럽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클린턴에 자리한 나의 첫 교회에서, 나는 미스 아그네스를 심방했다. 미스 아그네스는 윈드롭 칼리지에서 내 어머니의 룸메이트였다. “일리 목사님, 목사님이 태어났던 게 어제 같아요!” 미스 아그네스가 아이스티를 내오며 말했다. “목사님이 루비 뱃속에 있을 때, 제가 찾아갔던 게 기억나네요. 그 해는 참 끔찍했어요. 루비는 자신이 살든 죽든 개의치 않았어요. 그 아홉 달 동안, 머리카락이 눈처럼 하얗게 변했지요.”

내가 태어났던 해가. ‘끔찍했다’고?

“그때 루비는 절대 행복하지 않았어요. 마흔 살 여자가 아기를 갖





티모시
존스,
전통

고 놀랐던 거죠.” 미스 아그네스는 내게 과자를 건네며 조금 경멸적인 웃음을 띠고 말했다. “하지만, 목사님이 루비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었어요. 그건 참 다행이에요.”

이러했다. 어쩌다 태어난 나는 출소 후 첫 열매였다. 이런 까닭에, 나는 '계획 출산'이란 말이 불편하며, 1946년 당시 낙태가 쉽지 않았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라부터 하갈과 마리아까지, 성경에 나오는 당혹스러운 임신 이야기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가 아버지에 대한 분노나 아버지를 쫓아낸 가족에 대한 분노나 이들의 거대한 짐묵의 음모에 대한 분노를 쏟을 수 있었다면, 내가 원수를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시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주

먹을 쥐고 모든 것을 극복한 용감한 희생자일 수 있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나는 알지도 못하는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없었기에 극복해야 할 반감도 거의 없었다. 나는 아버지가 나의 성경 해석을 개선해 주었다고 믿는다. 바울은 갇힌 적이 있었고, 우리 주님도 그러했다.

당신은 그리스어를 배울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의 노친네가 전과자가 아니라면, 내가 신학생들에게 자랑하던, 신약성경의 아주 많은 부분이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시 100:3, 새번역). 주일학교 때 반쯤 암송한 또 다른 빛나는 구절이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만들기 좋아하신다는 걸 알아서 얼마나 다행인가? 당신이 바닥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우리가 자생한 존재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걸 시사한다. 존 알렉산더(John Alexander)가 2012년에 낸 책 “교회됨(Being Church)”이라는 책에서 지적했듯이, 신약성경에서 부르심(calling) 또는 소명(vocation)이란 용어는 취업이 아니라 제자도를 가리킨다.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도록 부름을 받거나(딤후 6:12), 또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부름을 받거나(고전 1:9), 어두운 데서 불려냄을 받거나(벧전 2:9),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도록 부름을 받을 수 있지만(롬 8:30) 어떤 직업을 갖도록 부름을 받지 않는다. 바울은 천막제조자였지만(행 18:3) 어디서든 천막제조자로 '부름을 받지는' 않는다. 천막제조는 식탁에 빵을 공급했으며, 이것만으로 바울이 이 일에 최선을 다하

기에 충분했다.

인간은 직업을 가지며, 소명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신화학자’ 조셉 캠벨(Joseph Campbell)은 소명을 “당신의 지복(至福) 따르기”라고 유명하게 정의한다. 신화학자 프레드릭 뷰크너(Frederic Buechner)도 비슷하게 소명은 “당신의 깊은 기쁨과 세상의 깊은 주림이 만나는

흔외 임신을 하고,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 한 아픔을 느끼며, 십자가에 달려죽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낳기로 결정했어요?”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가?

소명은 자아의 후미진 곳을 뒤적거림으로써 발견되길 기다리는 내적 의향이 아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듯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

소명은 당신의 필요나 욕망이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거다.

곳”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불을 던지시고(눅 12:49), 아버지가 아들과 분쟁하게 하시며(눅 12:53), 화평이 아니라 칼을 주러 오신 분이(마 10:34) 지복을 의심스럽게 하신다. 예수님은 때로 지복을 무너뜨리는 사명에 참여하라며 징집영장 내밀고 선동적 소명을 주신다. 바울에게 물어보라.

“나는 사람들과 일하길 좋아해. 그러므로...” 또는 “나는 말을 잘 해, 그러니 당연하...” 이것은 소명의 방식이 아니다. 병자들을 돌보는 일은 어떤가? 아니라고? 끌리지 않는다고? 광고는 어떤가?

소명은 당신의 필요나 욕망이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은 소명을 통해 당신의 삶이 변화되어 그분이 이루시는 세상 구속의 한 결과가 되길 원하신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평범했고, 재주도 없었으며, 별 볼일 없는 촌놈이었다. 이들만 보더라도, 타고난 달란트나 내적 열망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을 맡김으로써 삶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이 소명과 더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르시는 그리스도가 없다면, 내면의 달콤한 목소리는 우리가 불러낼 수 있는 최선이다. 그러나 자신의 주관적 느낌에 바투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이 판에 박힌 듯이 요구하시는 것만큼 희생이 따르고 미친 일에 자신을 내어맡기겠는가?

“마리아, 어떻게, 당신의 삶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요 15:16).

내가 젊은 시절 암스테르담의 긴 밤에 던졌던 “도대체 어떻게 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는 거냐고요?”라는 질문에 성경이 답한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선택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이런 저런 형태의 제자도를 두셨다.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물로 소명을 받아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 특별히 사용 받을 거라 기대할 수 있다. 나의 행복한 목회 생활의 가장 행복한 부분 중 하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식을 지켜보는 것이다. 갠히 자에게 편지를 쓰거나, 교회 재정부 모임에 참석하거나, 환자의 요강을 비우거나, 경건한 자녀들을 양육하거나, 배고픈 자들에게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거나, 공립학교 교사가 되라고.

노스사이드 연합감리교회 조찬 기도회에서(경건하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과 소시지 비스킷이 있는 시간에), 나는 거기 모인 평신도들에게 경건하게 요청했다. “매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조니가 어젯밤에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음전운전입니다. 조니를 꺼내기 위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매리가 아들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알코올 중독에 대해 얼마나 아세요?” 나의 목양에 감동을 받지 못한 한 형제가 물었다.

“보석금은 어디서 구하시려고요?” 또 다른 사람이

물었다.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도 제목에서 빼주세요. 저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셋이 유치장 앞으로 갔다. 겁에 질린 젊은이가 구석에 웅크린 채 훌쩍이고 있었다.

“자네, 술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얼마나 됐나?” 우리 가운데 하나가 쇠창살 너머로 물었다.

“저는 ‘문제’가 없어요.” 조니가 대답했다.

“다시 묻겠네. 자신의 문제에 대해 언제부터 거짓말을 한 거지? 나도 폭음에 대해서는 알 만큼 알아요. 군대 있을 때부터 술 문제 때문에 힘들었거든. 그래서 자

는 가장 중요한 밤을 자신이 떠날, 이번에는 영원히 떠날 날로 선택했다. 그날 밤에 차를 몰고 교회에 가는데, 내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게 부끄러웠다. 이 비극을 슬퍼하려 애썼지만, 나의 슬픔은 먼 친척이 죽었을 때보다 크지 않았다. 서둘러 교회에 들어갔다. 목사 가운데 입을 고, 띠 장식을 단단히 매고, 촛불을 밝히려 지시하고, 찬양대에게 내가 좋아하는 “적막한 한 겨울에”(In the Bleak Midwinter) 대신 “참 반가운 성도여”(O Come, All Ye Faithful)를 입당송으로 부르게 했다.

당신에게 교회는 이런 곳이다. 교회는 우리가 찬양

당신은 목사가운데를 단단히 매고 기도한다.

“나를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 내게 냉철한 결단력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 나가게 하소서.”

네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우리가 자네를 여기서 꺼내 줄거야.” 변호사인 다른 사람이 말했다. “나랑 우리 집에 가자고. 우리 아이들은 다 독립했어. 조니의 어머니는 사는 게 힘드시잖아. 나는 다른 사람하고 클렘슨 대학 풋볼팀 경기 보는 걸 아주 좋아해.”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렸다.

1 981년 크리스마스이브였다. 노스사이드 연합 감리교회는 내가 새로운 목사로 부임하기까지 몇 년 간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상황이 너무도 안 좋아서 그 이전 해에는 성탄절 예배를 준비할 돈도 열정도 없었다. 의기소침한 교인들은 승리가 필요했다. 설령 나 혼자 초를 만들고, 포인세티아 꽃을 기르며, 가정으로 “오 거룩한 밤”을 불러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노스사이드에서 나의 첫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감성이 물론 핑기는 촛불 축제가 될 터였다.

성탄절 전날 밤 설교의 원고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데, 형한테 전화가 왔다.

“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셨다.”

거의 알지도 못하는 아버지가 내가 새 교회에서 맞

고 싶지 않고 믿음이 있다고 느끼지 못하며 “기쁘고 의기양양하지”(joyful and triumphant, <참 반가운 성도여> 라는 찬송에서 “다 이리 와서”로 번역된 부분—옮긴이) 앓을 때라도 행진하며 찬양하라고 강요한다. 교회는 당신이 적절한 동기를 부여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배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당신이 목사로 부름을 받을 때, 목사이고 싶지 않지만 목사 노릇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수없이 많다. 당신은 아픔을 겪고 있고 어쩌면 감정적으로, 신학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처했을지 모른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슬퍼하도록 돕는데 전문가여야 하지만, 정작 자신의 상실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지 못할 수 있다. 목사로서, 당신의 개인적인 문제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밀린다. 당신은 그들에게 유일한 목사이며, 크리스마스는 일 년에 한 번 뿐이다. 그래서 당신은 띠를 단단히 동여매고 기도한다. “나를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 내게 냉철한 결단력을 주셔서 이 상황을 헤쳐 나가게 하소서.” 당신은 그리고 싶지 않을 때라도 나가서 그들의 목사처럼 행동한다.

다른 많은 경우와 교회에서처럼, 그해 슬픈 노스사이드에서 맞은 크리스마스이브에도, 나는 감정을 억제하는 목회술을 발휘하며 내 소명을 수행했다. 일어나

설교자 연기를 했다. 나를 사기꾼이나 위선자라고 비난하지 말라. 그날 밤,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거의 감사했고, 세례가 나 자신의 가족보다 영망인 교회 가족을 내게 준 게 기뻐지며, 임신한 동정녀가 아버지 노릇을 못한 아버지의 죽음을 제대로 슬퍼하지 못하는 아들보다 더 뉴스거리가 된다는 게 즐거웠다.

나는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 아버지의 불행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나는 특권을 누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부르심을 받았으며, 내 소명을 받아들여 심호흡을 하고 강단에 서서 메시지를 전하며, 사람들이 그 밤을 헤쳐 나가도록 돕는 성경 구절을 제시해야 했다. 그들이 스스로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누군가 소식을, 에텐의 동쪽이든 그린빌의 북쪽이든 간에 어둠의 땅에 거하는 모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야 했다. 설령 우리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더라도(요 3:19), 하나님은 어쨌든 성육하신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의 역사 하나하나마다, 후회와 마무리되지 않은 일들이 있다. 세상은, 좋기는 하지만, 절대 충분하지 않다. 완전한 구속이나 완전한 보상을 위한 시간과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우리 유한한 인간과 한 가지 유한을 공유하신다. 하나님일지라도 우리의 과거를 없는 것으로 하지 못하신다. 잃어버린 날들을 되찾을 수 없으며, 과거를 바꿀 적절한 성경구절을 생각해 낼 수 없으며,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이때 당신은 말씀이, 영원한 로고스가 육신이, 우리의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신 것에 감사한다. 하나님은 영으로 남길 거부하셨다. 말씀이 침노해 우리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말을 하시고, 빛이 우리의 어둠을 비추신다. 하나님이 혼란과 후회로 가득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다. 이 이야기를 전할 사람은 우리뿐이다. 우리는 어떻게든 걸음을 내딛는다. 우리는 노래한다.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신도가 아닌 이들도, 다 이리 오라. 어쨌거나 그분께 경배하

자.

놀라움 중의 놀라움은,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는 빌어먹을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린빌의 이름도 아이러니한 서밋 드라이브(Summit Drive, 저자가 담임하는 교회가 위치한 동네 -유킴이)에서, 실의에 빠진 작은 교회가 도둑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할 의지조차 없는 감성적으로 미숙한 목사와 함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알파와 오메가께서 우리의 유한에 들어 오셨고, 우리의 허비된 역사에 성육하셨다.

나는 어찌다 태어났고 아버지 없이 살았다. 하나님, 당신께 올 수 없는 입술이 부정한 자들에게 오소서. 주님, 위험하게 사소서: 나를 보내소서. >





수도자

그리고

순교자

앙겔로스 대주교 인터뷰

순교자들이 우리에게 소명에 대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런던 콥트 정교회 대주교 앙겔로스 대주교가 쟁기의 피터 맘슨과 오늘날 박해받는 교회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다.

쟁기: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라고 썼습니다(엡4:1). 이 소명이란 무엇인가요?

앙겔로스 대주교: 우리 모두는 ‘세상의 빛’과 ‘이땅의 소금’이 되는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종들이 자신이 받았던 것을 주인에게 주었던 것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말입니다. 하나님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소명입니다.

물론 소명은 좀더 구체적으로는 기독교 사역의 부르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교나 사제, 집사가 될 수도 있고, 주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노숙자들을 먹이는 일이나 다른 종류의 봉사활동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수도사가 되는 소명도 있습니다. 제가 있던 수도원은 이집트의 사막에 있는 성 안토니에 의해 4세기에 설립되었으며, 콥트 정교회의 기둥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헌신적인 남녀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하나되게 하라”는 부름에 순종하는 특별한 소명을 따르는 활기찬 수도원과 수녀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회의 다른 부분이나 세상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교회와 세계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교구의 사제들은 결혼한 남자로 서품을 받고, 수도사와 주교들은 모두 독신입니다.

주교님은 수도원에 사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곳에 가셨나요?

전 이집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다섯 살 때 우리 가족은 호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었을 때 저는 이집트로 돌아가 수도원의 일원이 되라는 강

력한 소명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스물두 살 때인 1990년에 호주를 떠났고, 평생 정결과 가난, 순종을 맹세하며, 카이로와 알렉산드리아 중간 지점의 사막 고속도로에 있는 스케티스 계곡(아랍어로 와디 엘 나트룬)의 성 비쇼이 수도원에 합류했습니다. 이 수도원은 4세기에 설립되었으며 일부 건물은 실제로 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재 약 250명의 수도사들이 살고 있고요.

종교 공동체에 평생 서약을 하는 결정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는 급진적인 발걸음으로 여겨집니다. 왜 수도사가 되셨죠?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나중에 돌아볼 때 더 분명히 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때 저는 세상을 떠나 수도원으로 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때 호주에서 제가 속한 공동체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죠. 교회를 섬겼고, 학교에서 정치학과 철학을 공부한 다음 법학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일을 병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광야에서 기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수도사들은 평생 수도원에 남지만, 때로는 다른 곳으로 보내집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우리 교구 사제들은 보통 결혼한 남자로 서품을 받지만, 것처럼 예외도 있습니다. 수도원에서 얼마간 지낸 후, 저는 매우 작은 교구에서 수도사-사제로 섬기기 위해 영국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주교 서품을 받았고, 이제는 대주교로 섬기고 있습니다.

콥트 수도원이 활기차다고 하셨는데요.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4세기에 비롯된 이런 금욕적인 전통은 지금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중

이집트 와디 엘 나트룬 성 비쇼이 수도원



요한 부분입니다. 수도원은 또한 신앙을 포기하라는 엄청난 압력의 한 가운데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하나

음을 증거한 순교자들을 보면, 콥트 교회가 살아 있고, 그것이 특정한 방식으로 교회 구성원을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에게 정절은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통과 믿음을 저버리라는 압력을 극복할 은혜를 주십니다.

브루타호프 장로 폴 윈터와 앙겔로스 대주교(오른쪽). 2019년 2월 21명의 콥트 순교자 추모 행사에서.

님께 의지하여 살아있는 교회를 찾아 갈 수 있는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일부 비 정교회 역사학자들의 오해와 달리, 초기 수사들과 수녀들은 순교를 피하기 위해 사막으로 도망치지 않았습니 다. 왜냐하면 수도원 자체가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수도사와 수녀들을 죽인 베르베르족의 공격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도원들은 곳곳이 그 박해를 이겨냈습니 다.

수도원은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콥트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적이 한번도 없었어요. 제가 사는 수도원에는 아치 꼭대기의 안전한 위치에서 수도원 정문을 내려다 볼 수 있는 텃문이 있습니다. 이 텃문은 수도사들이 습격자들에게 음식과 물, 약을 내려 줄 수 있도록 지었습니 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청지기 정신과 환대의 이상인 겹칩니 다. 우리는 공동체를 돌보는 동시에 세상을 돌봐야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요.

금욕주의는 평신도의 삶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교님은 일년 중 약 3분의 2를 금식하고 매일 기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삶의 박동과 주교님 교회의 많은 사람이 믿음을 위해 고통받고, 특히 순교라는 특정한 소명을 받아들이려는 의지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단식과 교회의 전례는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본질적으로 보여줍니다. 2015년 ISIS에 의해 21명의 순교자가 살해되었을 때처럼, 개인적인 기도 생활과 순교 같은 대중을 향한 증거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는 겹칩니 다.

어떤 사람들은 콥트 정교회가 구식이거나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매우 자연스럽게 자신의 믿

지난 몇 년 동안 이집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글쎄요... 지난 몇 년만 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성 마가는 1세기 중반 이집트에서 그리스도에 관해 설교했습니다. 교회는 그 이후로 계속 존재해 왔고, 이런저런 박해를 당해 왔으며 그건 오늘도 여전합니다. 특히 2011년 무바라크 당시 대통령에 대한 항쟁 이후 법과 질서의 일시적 붕괴가 있었던 이른바 ‘아랍의 봄’ 이후 교회에 대한 박해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기독교인들을 표적으로 삼는 폭력적인 이슬람 집단을 목격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교인들은 일부 지역의 신자 가정과 개인을 표적으로 지속적으로 자행된 폭탄 테러와 총격으로 어린이와 남녀 약 150명을 잃었습니다. 종려주일에는 알렉산드리아와 탄타에서 예배 중인 교회를 폭파하는 사건이 있었고, 교회를 나서는 신도들에게 가해진 총격 사건, 그리고 수도원으로 순례여행을 가는 버스의 순례자들을 총격한 사건이 최소한 두 번 있었습니다. 이 피해자 중에는 수도원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오던 한 대가족도 있었어요.

이집트 콥트 기독교인들이 행하는 증거는 자신들이 다음 표적이라는 것을 알고도 계속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가족은 교회에 가기 전에 함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두 되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피의 교회 연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콥트 교회의 박해로 인해 기독교 연합의 새로운 문이 어떻게 열렸나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표현을 2013년 로마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5세기 동안 우리를 분열시켰던 신

학 문제를 해결하는 두 교회 사이의 그리스도교 협약 체결 40주년 기념식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는 2015년 리비아 순교자 21명 중 한 명이 콥트 교인이 아니라 가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박해는 이상한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습니다. 박해자들이 닥쳐올 때, 그들은 당신이 어떤 교파인지 묻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당신을 죽일 뿐입니다. 우리는 박해자들이 정한 그 명칭을 공유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공통성을 확실히 인식해야 합니다.

박해는 콥트 교인들에게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스리랑카와 이라크에서 교회들이 폭파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시리아와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것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감싸 지키고, 서로의 고통과 기쁨을 나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박해를 당했는데 편안하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 피해자가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구성원이라면 더 그럴 겁니다.

지난해, 대주교님과 제가 21명의 순교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여러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속한 아나뱃티스트 공동체인 브루더호프와 콥트 정교회는 같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했지만 신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상당한 차이를 지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이 얼마나 분명한지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어, 아나뱃티스트 전통에서도,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전승하려는 강한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교회의 차이점을 없앨 수는 없지만, 확실히 올바른 관점으로 돌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신학적 차이를 결코 얼버무려서는 안 됩니다만, 이 말이 콥트 교회와 브루더호프가 지난 한 해 동안 해왔던 것처럼 함께 일하면서 어깨를 나란히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박해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보다는 덜 극적이



면서도 여전히 우리 믿음을 위협할 압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문화는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항상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라고 요구받지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자도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지만, 그게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 할 때, 우리는 선택의 여지를 남겨 놓지 않습니다. 오늘날 제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전 세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일까요?

모든 시대에는 나름의 도전이 있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저희 교황 세누다 3세께서 저를 영국으로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잊지 못합니다. 과거의 문제는 사람들이 옳고 그름 사이에서 항상 그른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지금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호합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과 우리가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4세기에 설립된 성 비소이 수도원에는 현재 250명의 수도승들이 살고 있다.



이집트
와디 엘 나트
룬 시리아
수도원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신성시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고, 지도하고, 우리 자신이 충실하고 우선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우리의 믿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 설교와 내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강하고 분명하게 유지된다면, 나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영은 여전히 그 메시지를 갈망할 것입니다.

서구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가 문화의 테두리를 정했던 시대를 무척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서구 교회와는 달리 콥트 교회는 수세기 동안 소수 교파였어요. 콥트 교회의 경험은 서구 교회에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집트에는 이슬람교도보다 콥트계 기독교인이 적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볼 때 우리는 확실히 소수입니다만, 우리는 소수파로 분류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중동의 많은 기독교 공동체에서 우리

콥트 교인들은 오래동안 토착해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원주민이지요.

90퍼센트 콥트 교인들은 여전히 이집트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독교인들과는 아주 다른 상황입니다. 그곳의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조국을 등쳐야 했죠.

박해를 받으면 신앙 생활 방식이 바뀝니다. 사람들이 무관심해질 겨를이 적어서 그들의 증언은 더 실존적이고 더 강력합니다.

당신은 주교이십니다. 그건 목자란 뜻인데요.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소명이 항상 우선시됩니다. 제가 보살피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 책임지겠다는 다짐이지요. 그것이 제 삶의 동력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제 우선순위는 항상 제가 섬겨온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의지하고 제게 위탁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버지처럼 사제나 주교가 직접 묵회하려는 의식이 매우 강함

니다. 그냥 아버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영적인 아버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퇴는 없고, 평생 사역을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리고 있는 것처럼 일단 서품을 받은 주교는 그 교구를 평생 섬깁니다.

저는 런던에서 사제로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신도들은 모두 저를 직접 대합니다. 제 사목팀이 다른 교단과의 연대와 지지 사역 등을 포함한 모든 외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저는 교회 안 목회 사역을 직접 다룹니다. 사람들은 제게 직접 전화를 하고, 저와 직접 상담 약속을 합니다. 아직도 집으로 심방도 가고 고해성사를 듣고 있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세례를 주었던 분들의 자녀들에게 세례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안정과 지속은 우리가 섬기는 이들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도록 위탁받았으며, 우리가 그 소명에 충실한지 안 한지에 따라 차이가 생깁니다. 우리가 더 충실하게 목양을 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정말로 따르고 그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명, 부르심에 대해 이야기해 왔는데요. 자신들은 은사가 없다, 소명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분들을 격려하시겠습니까?

우선, 나는 그분들에게 당신들이 틀렸다고 말할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니까요. 그분은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하시고, 그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사들을 볼 수 없다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지 못했거나, 우리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느끼게 하는 사탄의 계략에 굴복하여 무기력해진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무언가 기여할 것이 있지만, 때로는 자기 눈으로 그걸 알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보통 투자 자문을 구하지 않나요? 건강해지고 싶다면, 우리는 체력 단련 강사를 찾아요. 마찬가지로 영성에 관해서는 우리를 제자도로 인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소

명이 무엇인지, 우리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그것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를 타이를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족, 충실한 친구, 영적 지도자, 성직자들이 우리를 정말 도우려 할 겁니다.

과부의 동전 두 닢이나 어린 소년의 빵 다섯 덩이와 두 마리 물고기같이 우리는 늘 기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소명에 대답하고 그 은사를 사용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것은 거짓된 눈가림이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려주는 축복으로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인터뷰는 2019년 7월 31일에 이루어졌다.



레이첼 피에 존스

사랑은 두려움보다 강하니

질병, 전쟁, 종교 극단주의가 뒤섞여 분출하는 북동 아프리카에서 한 여성은 어떻게 변화를 일깨웠을까? 아날레나 토넬리는 어떻게 해서든 그곳에서 살았고 역사상 가장 무시무시한 병을 이겨낼 방법을 찾았다.

세 살배기 소말리아 아이인 이브라힘은 영양실조와 척추결핵을 앓았다. 경찰이 이브라힘을 발견한 곳은 케냐 북동지역의 어느 사막이었는데, 당시 아이는 기아에 죽어가고 있었다. 이브라힘은 자신을 안아주려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매달리고 가슴에 자신의 머리를 지긋이 눌렀다. 이탈리아 출신으로 케냐 와지르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아날레나 토넬리는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아날레나는 몇 날 며칠을 아이 곁에 머무르며 아이가 혼자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애썼다.

아날레나가 처음으로 이브라힘을 침대에 눕히자, 아이는 자기 옆에 누으라고 그녀를 당기고 자기 머리를 그녀의 가슴에 기댔다. “아이가 얼마나 아플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이브라힘은 그저 엄마의 심장 소리가 주는 위로나 평화, 안정감을 바랄 뿐이지요.”라며 옆에 있는 요양보호사에게 말했다.

1970년대 와지르는 주로 소말리아인들이 몰려 살던 외딴 지역으로 삶이 척박한 곳이었다. 유니세프는 수질조사를 하고는 이곳의 물은 사람이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선언했고, 고립된 유랑민들이 사자의 공격을 받거나 뱀에 물리는 일은 흔하다 흔한 일이었다. 기온은 섭씨 40도로 치솟고, 전기도 없었다. 아주 가끔 비가 오기라도 하면 대참사 수준의 홍수가 났다. 병원은 항상 인력, 장비, 물품 등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결핵, 말라리아, 장티푸스, 콜레라, 뎅기열이 크게 유행했다.

1970년 아날레나는 와지르에 교사로 부임했지만 콜레라가 창궐하면서 가르치는 것보다 이브라힘처럼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주가 되었다. 소말리아인들은 전염성 강한 질병인 결핵에 대해 편견이 심했는데, 이를 본 아날레나는 점차 결핵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사람들은 결핵이라는 말조차 쓰지 않고 그저 기침이라고 우기곤 했다. 동네에서는 한 사람이 결핵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결핵환자는 바로 추

방되거나 버려지곤 했다. 사람들은 결핵환자로 사느니 차라리 죽기를 바랐다.

선진국에서는 아직도 많은 이들이 이제 결핵은 사라졌다고 생각한다. 아이티에서 결핵 퇴치에 애쓰고 있는 폴 파머 박사는 “잊혀진 전염병이 잊혀진 이유는 더 이상 부자들을 괴롭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6년, 수 십년만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결핵이 증가하고, 이듬해에는 약물 면역력이 생긴 결핵이 미네소타에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 다음 해, 한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평생 2번은 검진을 받도록 강제하는 법을 발표했다. 언론들은 19세기에나 있었던 질병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앵다투어 보도했다.

2015년, 런던 보건 위원회 회장인 온카 사호타 박사는 “결핵이 개도국이나 옛날에 있었던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질병이다. 분명 과거의 질병이 아닐 뿐 아니라,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날레나가 케냐로 갈 때는 결핵에 대해 잘 몰랐지만, 어린 시절부터 병든 이들, 가난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갔다. 그녀는 자신의 고향인 이탈리아 포틀리에서 ‘세계기아퇴치위원회’라는 단체를 설립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성이 차지 않았다. 캐서몬이라는 슬럼가를 발견하자 그곳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아날레나는 캐서몬의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가고, 등록금을 대신 내주고, 심지어 발톱도 깎아주었다. 누군가가 빨감이나 석탄이 필요하다고 집으로 전화를 하면, 얼른 달려나가곤 했다.

그녀가 친구들과 형제자매들에게 자신이 하는 활동에 참여하라고 강력히 권하자, 이들은 그녀의 비범한 설득력에 이끌려 참여했다. 마리아 테레사라는 친구는 비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평생의

레이첼 피에 존스는 지부티에서 남편과 함께 국제학교를 운영하며 글을 쓴다. 2019년 10월, 쟁기에서는 레이첼의 신간 “죽음보다 강한: 아날레나 토넬리, 아프리카의 불에서 공포와 결핵과 맞서다(Stronger Than Death: How Annalena Tonelli Defied Terror and Tuberculosis in the Horn of Africa)”를 출간했고, 이 글도 그 책에서 발췌했다.plough.com/StrongerThanDeath



동반자가 되었다. 가톨릭 신자이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아날레나에게 영감을 준 것이 무엇인지 묻자, 마리아 테레사는 “간디. 간디요. 간디랍니다.”라고 말하며 “아날레나는 간디에게서 사랑이란 기꺼이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아를 조금씩 버리고 절제하는 것이란 것을 배웠습니다.” 하고 덧붙였다. 아날레나는 인도의 독립운동가인 간디를 “제 2의 복음”이라고 말하고는 했다.

1960년대 초, 아날레나가 간디의 글을 읽고 있을 때 이탈리아의 가톨릭에서도 급진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타 종교와의 대화를 권장하고 평신도들이 국내외로 선교의 소명을 살아나기도록 권했다. 모든 신도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 영성의 삶을 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섬기려고 수녀나 사제가 되거나 교회 영향력 하에 일할 필요는 없었다. 이런 점이 아날레나의 독립적인 성격과 잘 맞았고, 특히 선교자라는 소명을 생각할 때 사회적 실천을 새로이 강조하는 방향도 아날레나에게 잘 맞았다. 캐서몬에서의 경험을 계기로 아날레나는 일생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살고 헌신할 수 있는 장소를 찾기 시작했다. 동아프리카에서 한센병 환자 사이에서 일하던 친구인 피나 지아니에게 영감을 받아 아날레나는 케냐에 정착했다. 피나는 아날레나가 교사 계약을 맺도록 도와주었고, 1969년 드디어 아날레나는 이탈리아를 떠났다.

아날레나는 아주 드물게 공식 석상에서 발표하는 자리에서 “가난한 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섬기는 법은 무한해서 상상에 맡겨야지요. 누가 섬기는 법을 가르쳐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요. 우리는 새로운 천국과 일상을 살아가는 이 지상을 매일 새롭게 창조해 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심도 없이 계속 남아계시는 것일 뿐이지요. 우리는 주님의 현존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표징이자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주님을 살아 계시게 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들 곁에 머무를 때마다 주님을 살아나도록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케냐에서 아날레나가 가톨릭 교회의 제약과 체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활동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자신을 지원할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테레사와 5명의 여성 동지들이 동참했고, 이들은 아침마다 기도하고 함께 성경을 읽고 아픈 이들을 돌보며 나날을 보냈다. 이어 파라센터, 즉 기쁨의 센터라는 물리치료 센터를 지었다.

그리고 소아마비나 어린 시절 앓았던 병으로 장애가 생긴 이들을 치료했다. 아날레나는 계속해서 가장 가난하고 버려진 이들에게 끌렸다. 당시 의료장비의 부족과 미신, 사회적 낙인 탓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말리아 유목민 폐결핵 환자들에게 관심을 돌렸다.

자신의 이름을 모래와 역사에 묻어둔 어느 젊은 여인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아날레나가 돌보았던 전형적인 경우였다. 이 여인은 소아마비로 고생하다 이제는 폐결핵으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아날레나는 죽음을 앞둔 마지막 몇 시간 동안 그녀의 곁을 지켰다. 이들은 서로 말을 나눌 수는 없었지만, 아날레나는 서로를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 여인은 막대처럼 가느다란 다리를 절며 몸은 너무 아워서 바로 가득찬 쌀자루처럼 느껴져 무섭기만 했다. 하지만 얼굴만은 의식이 충만한 표정으로 가득했다. 그녀 부족의 규율에 따라, 유부녀들이 쓰는 검정색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겸손하게 품위를 지켰다. 지금은 이혼을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한때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결혼한 여자의 자부심을 지녔다.

그녀는 손짓과 눈짓으로 아날레나에게 방에서 함께 밤을 보내고 싶다고 청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기침을 해댔다. 아날레나는 그녀 옆에 앉아, 여기 “주님의 참새가(아날레나가 아픈 이들을 모사할 때 좋아하는 표현이다)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창조주는 이들을 아시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무시하는 존재입니다.”

뜨거운 열기로 아날레나는 너무 졸려 머리를 가슴까지 떨어뜨린 채 졸고 있었다. 깨어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무더운 날씨와 고열로 병든 여인은 더욱 더 쇠약해져만 갔다. 아날레나는 자신의 일기에 “무한한 부드러움으로 그녀를 사

랑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지극한 사랑에도 밤샘 간호를 하며 눈을 제대로 뜨기 어려웠다.

아날레나가 머리를 떨군 채 스르르 잠이 들자, 그 환자는 오히려 자신이 베고 있던 지저분한 베개를 아날레나에게 주었다. 베개는 병균으로 득실거렸겠지만,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새벽 5시 즈음, 아날레나는 잠에서 깨어 환자의 손을 잡고는 미소를 지었다. 나중에 그녀는 “어쩌면 제 생이 끝날 즈음에, 제가 이 세상에서 한 일은 그저 한 세상 스쳐가며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웃어 준 것뿐이라고 말하겠어요.”라고 했다. 석유등의 빛이 환자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간신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축복합니다!”라고 말하고는 숨을 거두었다.

아날레나는 “이들은 이미 지상에서 너무 고통받았기에 천국에서는 아주 큰 상을 받을 겁니다.”라고 적었다.

감 염된 베개와 환자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접촉을 했지만, 거의 병에 걸리지 않았다. 가끔 그녀는 말라리아에 걸려 탈진하기도 했지만 폐결핵 양성 반응을 받은 적은 없었다. 와이즈르 병원에서 아날레나는 폐결핵 약물을 감독하기 시작했다. 이탈리아에 있는 친구들이 폐결핵 관리나 복합 치료법에 대한 서적과 기사들을 보내 주었다. 그녀는 스페인과 런던에서 의학 수업을 신청해서 단기 코스로 최신 치료용법을 배웠는데, 이론적으로는 치료 기간을 18개월에서 6개월까지 단축시킬 수 있었다. 아날레나는 33퍼센트의 결핵 치료 성공률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치료법은 간단했지만, 방식을 아주 정확하게 따라야 했는데 환자들은 적절한 시기에 딱 맞는 약을 복용해야 했다.

아날레나는 철저히 치료법을 따를 수 있다고 확신했지만, 문제는 유목민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 곳에 오랜 기간 지내도록 하는 것이었다. 유목민들을 한 곳에서 18개월간 머무르게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6개월은 가능할까? 어쩌면 가능할 수 있다. 유목민들 스스로가 머무를 수 있다는 확신이 서면 가



“섬기는 법은 무한해서
상상에 맡겨야지요.
누가 섬기는 법을 가르쳐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요.”

아날레나 토넬리

능할 수 있다. 하지만 병원, 지붕 아래 또는 사방이 시멘트인 감옥 안은 안 된다. 동물 또는 가족이 없어서도 안 되고, 자율성, 존엄, 생산성 등이 없어서도 안 된다.

간호를 잘 할 수 있는 적당한 곳과 약물과 관계를 잘 겸비한 환경을 만들어 낼 수만 있으면, 유목민들도 머무를 수 있다. 아날레나는 소말리아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이슬람교, 공동체, 독립임을 알았다.

이를 고려해서 아날레나는 파라 센터 주변의 자기 땅에 오두막집을 지을 수 있도록 초대했다. 유목민들은 가족들과 가족 한 둘을 데리고 올 수 있었다. 아날레나는 유목민들에게 6개월간의 치료가 끝나고 가래



환자들은
센터에
머물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했지만,
혹시라도 일찍
센터를 떠나면
이들을 찾아 다닐
친척 한 명을
지정해야 했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체류한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아날레나는 매번 정량의 알약을 복용하는 지 감독하고 식사를 제공했다. 그녀는 이슬람 사원과 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환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었다. 무엇보다도 아날레나는 이들의 이름과 가족 관계는 물론이고 구구절절한 사연까지 세세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결핵 박테리아에 걸린 환자들의 손을 잡고 볼에 보보를 했다. 그녀는 이들의 상처와 가슴을 어루만져 주었다.

케냐 정부는 새로운 단기 처치법을 홍보하기 전에 환자들이 실제로 치료를 받고, 치료로 인해 약물에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자 실험을 할 필요가 있었다. 1976년 4월, 아날레나는 와지르에서 폐결핵 관리 테스트 프로젝트를 관리하겠다는 계획서를 케냐 보건성에 제안했다. 그녀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난민기구(UNHCR)에서 기금을 받아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다.

새 프로젝트의 이름을 지을 때 아날레나는 파라 센터에서 그랬던 것처럼 폐결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했다. 그 대신에 '신의 이름으로' 마을이라는 뜻의 비스밀라 만야타라고 지었다.

환자들은 낙타에 오두막집을 지을 천막과 밧줄, 구부린 나무 막대기를 싣고 왔다. 곧 수 십 명의 사람들이 이 파라 센터 근처의 모래 벌판에 흩어져 살았다. 벽이 없는 마을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면서 오두막집들은 줄지어 선 작은 나무들과 환영 간판을 넘어 확대되었다.

환자들은 새로운 단기 치료 코스를 시작했다. 소말리아 환자들은 병세가 나빠져서 폐결핵 말기 단계에 있었다. 그리고 질병 치료를 위해 영양가 높은 식단을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체중 증가 탓에 거의 매주 약 복용량을 조정해야 했다. 일단 오두막집을 지으면, 사람들은 체류하고 싶은 동기 부여가 더 생기긴 했지만 아날레나는 여전히 환자들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했다. 환자들은 센터에 머물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했지만, 혹시라도 일찍 센터를 떠나면 이들을 찾아 다닐 친척 한 명을 지정해야 했다.

이 약속 외에, 아날레나는 환자보다 자기 스스로에게 부여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애썼다. 그녀의 주된 업

무 중 하나로 약물을 관리하고 환자들이 실제로 약물을 복용하고 삼키는 것을 직접 감독하는 것이었다. 아날레나는 이를 꼼꼼하게 기록했고 직접 관찰을 하는 것이 치료의 주된 일이 되었다.

사람들은 아날레나가 나눠주는 알약과 물, 오렌지 주스 그리고 의료기록지 봉치가 놓여있는 탁자 앞에 줄을 섰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알약을 삼켰다. 때로 너무 아파서 탁자로 올 수 없으면, 아날레나는 직접 모두 막집을 찾았다. 때로 그녀는 환자 입에 직접 알약을 넣어 주었고, 24시간 내내 4시간 교대로 약을 관리했다.

폐결핵 알약은 크기가 커서 삼키기 힘들었다. 환자들이 먹기를 거부할 때면, 아날레나는 이들이 약을 삼킬 때까지 옆에 앉아 기다렸다. 환자들이 토하면, 물을 가져다 주고 때로 위를 진정시키게끔 얇게 썬 케익 한 조각을 먹였다.

“저는 매일 이들과 함께하며 무릎을 꿇고 섬겼어요. 환자들 병세가 악화되거나 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나는 그들 곁에 앉아 눈을 들여다보며 이들에게 기운을 북돋아 주려 애썼어요.” 하고 말했다. 아프리카의 뿔에서 지낸 34년간, 아날레나는 93 퍼센트라는 놀라운 결핵 치유율을 달성했다.

아날레나에게 이 일은 기운이 나면서도 한편 매우 지치는 일이었다. 와지르의 어느 연세 지긋하신 이슬람 교인이 땅을 기부하자, 아날레나는 자신이 영적으로 쉬고 충전할 수 있는 일종의 휴양지 같은 은신처를 지을 수 있었다. 그녀는 은신처에서 일년 정도 보내기를 꿈꾸었지만, 밀린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만약 야타에는 그녀를 찾아오는 손님이 많았는데, 그녀는 방해를 피하려 새벽 5시에 일어나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다. 새로 온 환자, 예전부터 있던 환자, 배고픈 아이들 모두가 그녀를 만나고 싶어 하거나 무언가를 달라고 청하곤 했다. 마리아 테레사는 이런 상황을 “침묵과 아픈 사람들 사이의 곤란한 선택”이라고 불렀다. 가난한 이들은 아날레나를 은신처에서 자신들이 처한 지옥으로 불러 냈지만, 아날레나는 자신을 가난한 이에게 데려간 분이 주님이시고, 자신을 주님에게 데려간 존재가 바로 가난한 이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

그녀는 위급하게 죽음을 맞이할 사람이 없다는 확신이 있을 때면 은신처로 가려고 노력했다.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끼면, 사람들은 침대를 메가로 향하게끔 돌리고는 아날레나를 불렀다. 마리아 테레사는 “이들은 이슬람 족장이 자신의 한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은 아날레나가 잡길 원했어요.” 하고 나에게 말했다. “족장은 코란을 기도하고, 아날레나는 침묵으로 기도하며, 이들은 함께 영원의 문까지 환자와 동행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순수 이슬람인이 이방인을 원한다는 것이지요.”하고 덧붙였다.

아날레나는 1985년까지 와지르에 살았는데, 당시 있었던 대량학살을 폭로하면서 더 이상 신변이 위태롭게 되어 활동을 지속할 수 없었다. 케냐 정부는 그녀를 쫓아내고는 비자를 갱신해주지 않았다. 아날레나는 소말리아로 건너가 더 많은 폐결핵 치료센터를 세웠다. 그곳에서 다시 그녀는 폭동에 휩싸이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내전이였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인 북 소말리아로 가서 환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일을 해나갔다.

사람들 대부분은 그녀를 아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날레나를 점점 미워하기 시작했다. 외국인이며 기독교인이고 인도주의자인 그녀가 의료관리의 취약성과 지역 내 편견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2003년, 아날레나는 난센 난민상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소말리아 내에서나 세계적으로 명성이 더 높아졌다.

30년간 폐결핵과 에이즈에 걸린 소말리아인들을 돌보았던 2003년 10월 5일 저녁, 아날레나는 소말리아 보르마 시에 자신이 세운 결핵 병원에서 저녁 회진을 하던 중 이슬람 과격분자들의 총격을 받아 쓰러졌다.

2003년 초 나는 남편과 아이 둘과 함께 소말리아로 이주했고, 당시 나는 병원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다. 남편은 보라마시의 아마우드 대학에서 자리를 잡았다. 난 아날레나를 만난 적이 없지만, 그녀에 대해 알게 되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끼면, 사람들은
침대를 메카로 향하게끔
돌리고는 아날레나를
불렀다.**

사이에 있는 물 웅덩이를 거닐던 곳이 이제는 트럭 운전사들이 발전기를 이용해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고 세차를 하는 곳으로 바뀌었다.

내 등뒤로, 먼지 투성이 길을 가로질러 비스밀라 만야타가 있다. 이곳은 아직도 폐결핵을 앓고 있는 유목민들에게 머물 곳을 마련해 주고 치료를 한다. 비스밀라 만야타 아래에 있는 은신처 안에는 “내 영혼은 내 생명의 주, 당신을 갈급합니다”라는 글이 새겨진 우물이 있다. 이곳은 이슬람교도들이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장소로 혹독한 사막의 아름다움과 성장하는 도시의 활력에 둘러싸인 곳이다. 이곳에서 나는 증오, 공포, 고립주의로 찢겨지지 않는 세상을 희망과 평화의 가능성을 느낀다. 나는 아날레나가 왜 이곳에 오랫동안 남았는지 잘 안다. ➤

은 신처는 여전히 와지르에 있다. 건물은 아주 소박하고 평이하다. 흙을 덧바른 벽, 작은 방 두 개에 테라스가 있는 2층 건물이다. 잡초가 무성하고 구석에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파라 센터에서 근무하는 케냐 출신 간호사들이 가끔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하긴 하지만, 그리 자주 오지는 않는다. 쇠로 만든 가로대가 이어진 탑은 여전히 벽에 단단히 박힌 채로 있다. 나는 아날레나의 발자취를 따라 기어올라가 난간에 걸터 앉아 와지르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날레나는 이곳에서 서서 광활하게 펼쳐진 사막과 듽덤성 서 있는 아카시아 나무를 보았다. 그 후로도 마물은 성장했고, 이제는 집과 건물로 시야가 가로막혀 있다. 첩탐이 하늘을 찌르고, 젊은 목동은 막대기를 어깨에 걸친채 느릿느릿 먼지투성이 길을 걷는 낙타들을 이끈다. 와지르 외곽에 있던 우물은 이제 센터의 한 가운데에 있다. 한때 대머리황새가 낙타와 유목민들

그림은 위키미디어에서(피블릭 도메인)

에버하르트 아놀드

사랑은 노동입니다. 근육과 정신, 마음과 영혼이 땀흘려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왕국은 일의 왕국임이 틀림없습니다. 형제에 정신으로 생기를 불어넣은, 진정으로 이기심 없이 하는 일은 인류의 성격을 규정짓는 미래가 될 것입니다. 영혼의 노동,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살아있는 현실의 노동, 함께 열성적인 사랑에 헌신하는 일은 미래의 토대를 창조합니다. 함께하는 기쁨은 일에서 기쁨으로 드러납니다.

아, 지금의 인류는 이런 노동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요! 오늘날 우리는 이 공동 생활의 가능성에 대한 개념이 희미하기에 비판론에 계속해서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어떤 환상적인 이룰 수 없는 미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것은 이미 오늘날 조용히 현실로 떠오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새롭게 떠오르는 교회의 신비는 우리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발아하고 꽃피웁니다. 우리는 이미 지금, 여기, 어디에서나 성령의 공동체에서 살고 일할 수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우리의 소명은 그리스도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라곤 고작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살아있는 행동으로 옮기는 수단 일 뿐입니다.

수녀, 사제, 심지어 교황까지도 모든 종교인들은 같은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 속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내 것으로 선택했다.” 그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의 수단,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예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옷과 마찬가지로 수단일 뿐입니다. 난 이걸 입고, 당신은 저걸 입습니다. 이것이 수단입니다. 하지만 소명은 수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소명은 예수입니다.

우리는 모두 신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

랑의 매체가 되어 마리아처럼 서둘러 영혼을 찾아 갈 준비를 하고, 모든 사람을 밝히는 불타는 빛이 되어, 예수님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한 영혼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도로시 세이어즈

현대의 경향을 보자면 일을 마치 돈벌이 정도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이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오류는 일을 사회를 위해 봉사하려는 인간의 창조적 에너지의 표현이 아니라 돈과 여가를 얻기 위한 것으로 전락시킵니다.

우리는 적절한 고용 조건뿐만 아니라, 노동이 온 마음을 다해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일 자체로도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기독교적 노동 교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중에게 노동을 신성시 하는 태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사악한 가치 기준에 강요받아 영적으로 타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어, 일련의 금융 속임수같이 저속하고 쓸모 없는 사소한 일이나 하게 된 것입니다.

리지외의 데레사

어느 날 성 바울의 서신을 열어 내 고통의 평안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내 시선은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첫째 편지 12, 13장에 머물렀습니다. 모두가 사도요, 예언자, 의사가 될 수 없으며, 교회는 여러 다른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눈은 또한 손이 될 수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답은 분명했지만, 내 욕망은 충족되지도, 내가 갈구하던 평화는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곳 깊숙이 내려갔고, 거기서 나는 위로 들어 올려져 원하는 곳에 이르렀다.”(십자가의 성 요한)

나는 낙담하지 않고 계속 읽었는데 이 조언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더 큰 은총의 선물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훨씬 더 훌륭한 방법을 보여줄 것입니다.”(고전 12:31). 사도 바울은 모든 완전한 선물도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나는 기쁨에 겨워 외쳤습니다. “오, 예수님, 내 사랑이시여, 이제야 제 소명을 찾았습니다. 제 소명은 사랑이었군요! ... 어머니인 교회의 가슴 안에서 저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출처: “에베르하르트 아놀드”(Eberhard Arnold, Orbis, 2005), 121~122; 도로시 세이어즈, “교리 또는 혼돈”(Creed or Chaos, Methuen, 1947), 68; 리지외의 데레사, “영혼의 이야기”(Story of a Soul, Burns, Oates & Washbourne, 1912), 11장; 마더 테레사, “사랑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No Greater Love, New World Library, 2016), 147.

잉라-에드몬드 크로스, 저녁 농장, 캔버스에 유화, 1893년





마이크 로 인터뷰

더러운 직업들

마이크 로는 디스커버리 채널의 유명한 프로그램 <더티잡>과 CNN 시리즈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고 스스로 견습공이 되어, 문명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배우기도 한다. 그가 <쟁기>의 수잔나 블랙을 만나 실질적인 기능직 일에 대한 그의 생각, 대학의 가치가 과대평가된 이유, 샌프란시스코의 하수관에서 구원을 발견하게 된 사연을 이야기했다.

쟁기 : 만일 젊은이들이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무엇을 잃게 될까요?

마이크 로 : 하나의 기능직을 통달하게 되면 경쟁력, 자신감, 책임 완수에 대한 감각을 갖게 됩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일을 잘 하게 될 때 뭔가 긍정적인 힘이 생기죠. 저는 제가 <더티잡>이라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항상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해야 할 일은 제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거든요. 자신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자각하면서 지속적인 반응을 받는 것은 정말 유익한데, 노동하는 직업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죠.

무엇 때문에 당신의 견해가 이렇게 급진적으로 들리는 거죠? 또한 이런 생각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 왜일까요?

요즘 사람들은 모든 선택이 이진법적이라고 느껴요. 제가 어느 한쪽 편을 든다면, 그건 다른 한 쪽을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직업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 그들은 “마이크는 대학을 반대해.”라는 뜻으로 이해하죠.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닌데 말이에요. 저는 불필요한 채무에 반대할 뿐입니다. 4년제 학위를 받기 위해 들이는 비용은 통제 불능이니까요. 물론 직업훈련을 옹호하는 주장만큼은

마이크 로는 TV 진행자이자 육체노동직 촉진을 위해 일하는 활동가이다. mikeroweworks.org

급진적이라고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장은 오랫동안 4년제 대학이 최선의 길이라고 믿어온 많은 사람들의 믿음과 충돌하니까요.

어떻게 그런 믿음이 뿌리내리게 되었을까요?

그건 마치 끓는 물속의 개구리와 같아요. (처음부터 끓는 물속에 개구리를 넣으면 깜짝 놀라 튀어나오지만, 찬물에 개구리를 넣고 가열하면 서서히 따뜻해지다가 결국 펄펄 끓게 되어도 위험한 줄 모르고 죽게 된다는 비유 - 율긴이) 하룻밤에 생겨난 믿음이 아니죠. 60년대에 우리는 대학이 홍보캠페인을 해야 한다고 믿었는데 거기엔 아주 그럴싸한 이유가 있었어요. 냉전이었죠. 우리는 자동화에 매진하고 있었던 소련과 경쟁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을 지켜보며 우린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엔 더 많은 기술자가 필요해. 우수한 두뇌들을 대학으로 보내서 연구에 몰두하게 해야 돼.” 그리고 고등학생들에게 실로 어리석은 메시지를 주입시켰습니다. “대학에 가지 않는다면 뒤떨어지게 되고 낙오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다른 것을 잃어가며 오로지 한 가지 교육형태만을 장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인력의 절반을 교훈적인 말만 늘어놓는 잔소리꾼으로 바꾸어 놓았고, 직업학교 대신 노동직을 위로하는 상금을 마련했죠. TV에서 몇 십 년 동안 각각의 직업군을 틀에 박히게 묘사하면, 우리는 결국 어떤 직업을 둘러싼 수많은 신화와 오해를 갖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반드시 대학에 가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압박에 대해 좀 더 얘기해주실 수 있을까요?

대학이 거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믿음은 견고하게 지켜져 왔고 지금도 매일 수많은 방식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만일 ‘좋은 부모’가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서 자녀가 빚쟁이가 되거나 불행해지면, 부모는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래도 우린 최선을 다했어.”라고 얘기하겠죠. 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한 걸까요? 교양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십만 달러를 대출받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위해 가장 좋은 길이라는 생각이 정말 지혜로운 걸까요? 4년제 대학에 입학한

학생 중 절반 정도는 끝까지 학교를 마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학위도 없고 쓸모 있는 기술도 못 배운 상태로 인력시장에 뛰어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빛은 고스란히 남죠.

부모들 역시 자녀들이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한 압박에 시달립니다. 그들은 자녀를 망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친구들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수천 명의 부모들은 좋은 의도에서 혹은 이성적인 판단에서 그랬다고 믿으며, 자기 자녀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를 떠안도록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그게 대학등록금이 에너지나 식품, 부동산, 건강보험료보다 빠르게 인상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학생들의 부채가 1.5조 달러에 이르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갖고 있지도 않은 돈을 마련해서, 값을 능력도 없는 자녀에게 빌려주고는,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730만개의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고, 그것들 중 대부분은 학위가 아닌 훈련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이제는 압력에 맞서야 할 때가 됐습니다.

당신은 자라나면서 어떤 종류의 노동을 접했었나요?

학교 선생님이었던 우리 부모님을 빼면, 우리 집안사람들은 모두 농부, 어부, 노동자였어요. 바로 옆집에 살았던 우리 할아버지는 전기 기술자였는데 도면 없이도 집을 지을 줄 아는 분이었죠. 자기만의 방식을 갖고 있는 천재였어요. 저는 할아버지처럼 되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애석하게도 그 뛰어난 유전자는 열성이었는지, 저는 그걸 물려받지 못했어요. 제가 노동으로 먹고 살지 못할 거라는 걸 깨닫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보도록 만들어준 건 오히려 할아버지였죠. 할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해주셨어요. “마이크, 들어봐라, 너도 장인이 될 수 있어. 단지 다른 도구를 사용하면 돼.” 전 그때 열일곱 살이었는데 음악과 연기에 눈을 돌리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그것들을 좋아한 건 아니고, 다만 제게 소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



마이크 로

죠. 적어도 뭘 만드는 것보다는 잘했으니까요. 저는 그 때 귀중한 교훈을 얻었죠. 뭔가를 좋아한다고 해서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처음에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예 해볼 생각을 접어서는 안 된다는 거였죠.

그렇게 해봤더니 어땠나요? 처음 가진 직업은 무엇이었어요?

볼티모어 오페라단 오디션에 도전했고 마침내 단원증을 갖게 됐죠. 그랬더니 텔레비전 오디션도 봐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QVC쇼핑채널에 굉장히 생소하지만 유익하기도 한 호스트 역할도 맡게 되었어요. 그 경험은 모든 것을 바꿔 놓았죠. 3년 후에 저는

모든 종류의 작품을 예약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기량을 쌓게 되었어요. 저는 만성적인 프리랜서가 되었고 거기에 만족했죠. 저는 모든 채널에서 일해 봤고, 모든 종류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수많은 자연 다큐멘터리를 해설했어요. 만일 세레게티를 가로질러 가려다 악어에게 잡아먹힌 야생동물에 관한 프로그램을 보셨다면 그것도 제가 진행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지내다 보니, 점차 나를 길러준 것들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내 몸의 에너

용접의 세계로! 기능을 가르치는 만족감

마리오 마이어

어렸을 때, 나는 대니 삼촌의 용접 실력을 우러러보았다. 두 개의 금속 조각이 영원히 결합된다는 것이 나를 매료시켰다. 아크 방전에서 푸른빛으로 갈라지는 불꽃은 정말 아름다웠지만 삼촌은 내가 보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1970년대 후반 '석유 파동'이라고 불리던 시기에 삼촌은 그가 살고 있던 뉴욕 북부에 있는 브루더호프 공동체 집들의 난방을 위해 화목 보일러를 설계하고 설치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삼촌은 혼자 배워서 익힌 장인이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고안한 경첩과 걸쇠를 제작하는데 능했다. 대니 삼촌을 지켜보며 나는 용접공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나는 직업훈련 과정으로 용접을 수강했다. 선생님은 옛 철강 도시에서 수년간 경험을 쌓은 분으로 금속작업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오싹한 이야기들도 들려주었다. 우리는 온갖 종류의 용접을 배우고 모든 자세를 연습했다. 용접공은 액화된 철강이 원하는 곳에 정확히 머물게 하기 위해 중력을 극복해야 하는데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내가 어떤 결합을 완벽하게

해내고, 기술과 형식을 선생님으로부터 인정받았을 때, 나는 자부심을 느꼈다. 용접은 하는 사람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다. 시인 키이츠가 "아름다운 것은 영원한 기쁨"이라고 썼을 때 용접을 생각하고 쓴 건 아니었지만, 충분히 그랬을 법하다.

그 다음 해에 삼촌은 나를 뉴욕으로 불러서 우리는 함께 커다란 화목 보일러를 만들고 용접했다. 나는 용접공이 되어갔고 삼촌은 나를 신뢰했다. 그는 부드러운 방식으로 나에게 직업 윤리, 남자다움, 그리고 인생에 대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더 이상 연습용 금속판을 용접하는 게 아니었다. 내가 용접하는 냉각기나 열 교환기 배관의 모든 결합 부위는 압력 시험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대니 삼촌은 나의 기량을 시험했고, 나는 그런 도전이 정말 좋았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피츠버그 북부에 있는 전문대학에서 일 년 동안 기계공학을 배웠다. 그리고 결국 나는 브루더호프의 일원이 되어 공동체 내의 리프트톤 기구 사업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치료 기

지를 어디에서 얻고 있는지, 나의 삶을 둘러싼 모든 노동과 역사와 같이 어렸을 때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언제부터가 당연하게 여기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마침 2001년 CBS에서 일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이제 90살이 되셨다.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진 못할 텐데, 할아버지께 네가 일답게 보이는 뭔가를 하는 모습을 텔레비전으로 보여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구나.” 어머니가 정곡을 찌른 거죠.

전 그때 <이브닝 매거진>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

고 있었는데, 상사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요, 우리 프로그램은 왜 와인 농장이나 무대 설치작업을 찍으면 안 되는 거죠? 건설 현장이나 하수관에서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랬더니 상사가 대답했어요. “맘대로 해, 마이크. 어차피 아무도 안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하수관에서 <이브닝 매거진> 한 회분을 찍게 되었습니다. 하수관 검사관이 안내를 해줘서 촬영기사 한 명과 함께 이루어 말할 수 없는 악취와 오물 속 몇 마일을 기어 다니며 하수관에 대한 모든 걸 알게 되



구를 제조하는 일이었다. 나는 이 회사에서 용접을 가르치고 감독하게 되었다. 다른 일을 하게 된 이후에도, 결혼을 하고 네 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나는 용접기술을 계속 사용하면서 취미 삼아 무언가를 만들었다.

그러다가 2년 전에 나는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와 뉴욕 에소푸스에 있는 브루더호프 고등학교인 마운트 아카데미에 새로 생긴 용접 직업훈련과정을 가르치게 되었다. 백 년이나 된 붉은 벽돌의 창고가 근사한 용접 시설로 개조되었다.

마침내 나의 기능을 물려줄 기회가 온 것이다. 이 과정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가지각색의 능력을 갖고 있지만 내가 오래 전에 배웠던 기술을 정복하려는 한 가지 열망에 차 있다. 용접의 가장 아름다운 정밀함은 텅스텐 전극으로 아크를 생성시키고 용접봉을 정교하게 움직여서 용접을 완성해내는 데에 있다. 이러한 TIG 용접은 대부분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레스 스틸에 가해지는데 아주 정교하고 일정한 물결 모양의 용접으로, 고급 산업자전거에서 볼

수 있는 형태다. 이 용접은 매우 특색 있는 광택을 띠고 있다. 학생들이 제대로 배운 다음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을 때는 어서 빨리 헬멧을 들어 올리고 자기들이 완성해 낸 예술을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난다.

지난 학기에는 다섯 명의 용접반 학생들이 뉴욕 주 USA 기술 경연대회에 참가했다. 한 학생은 용접 기술을 색다르게 창의적으로 사용해서 신화에 등장하는 눈부신 조각 작품을 창조해냈다. 또 다른 학생은 개인 경연 부문에서 상위권에 들었고, 세 명의 학생으로 이루어진 팀은 육각형의 화로를 용접해서 동상을 수상했다.

졸업하기 전에 각각의 학생들은 용접으로 이름 판을 만들어 명예의 벽에 높이 전시한다. 학생들은 모두 열심히 노력했고 절대로 잃지 않을 기술을 획득했다. 또한 작년에 돌아가신 대니 삼촌에게 내가 배웠던 그 교훈들도 함께 얻었다. 스스로 훈련하기, 성실한 노동에 대한 자부심, 기술직에 대한 존엄, 그리고 아름다운 구슬 모양의 용접 무늬에 대한 열정까지. ↪

왼쪽: “아름다운 구슬들” - 저자의 학생이 스테인레스 스틸에 작업한 TIG용접.
오른쪽: 마리오 마이어



어요. 그렇게 해서 저의 삶이 다시 진짜 일과 연결된 겁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어머니의 전화 한통이었던 거죠.

재단을 만든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2008년까지 <더티잡>은 디스커버리 채널의 가장 인기 있는 쇼였어요. 아니, 유선 채널을 통틀어 최고였다고 생각해요. 그때 경제가 하락했습니다. 기자들은 나에게 일과 관련된 모든 주제에 대해 논평을 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제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을 거라고 추측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그렇더라고요.

뉴스와 신문에선 실업률에 대해 떠들어대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제가 가는 곳마다 저는 구인공고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 이 나라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 일을 할 만큼 충분히 훈련된 일꾼이 없기 때문에 관심 받지 못한 기회들에 대한 이야기 말이죠. 저는 생각했죠. '이

었죠. 정말 낯설고 재미있고 매력적이었어요. 물론 몸이 바퀴벌레로 뒤덮이고 쥐들의 공격도 받았죠. 어쨌든 그 하수관 촬영분은 어느 날 저녁식사 시간에 방영되었는데, 지옥문이 열렸어요. 당연히 어떤 사람들은 역겨워 하면서 즉시 저를 해고하라고 요구했지만, 한편으론 많은 분들이 저를 초대하는 편지를 보내줬습니다. 내용은 한결 같았어요. "당신은 우리 아버지를 꼭 만나야 돼요. 우리 오빠를 만나주세요. 우리 삼촌, 조카, 언니... 그들이 하는 일을 꼭 좀 봐주세요." 우리 쇼는 일의 생생한 현장을 보여줬습니다. 진짜 일. 일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일이었죠. 그러면서 뭔가를 더 하고 싶은 욕구도 생겼어요.

그래서인지 10년 동안 진행자 역할을 한 뒤에 저는 견습생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디스커버리 채널에 <더티 잡>이라는 제목으로 팔았

런 이야기는 왜 아무도 하지 않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노동자들은 알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 저는 쓰기 시작했어요. 기술만 있으면 취직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있는데도 아무도 원하지 않기에 직원을 구할 수 없는 고용주들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설립한 <마이크 로 일자리 재단>은 기능직 일자리를 위한 홍보캠페인을 시작했고 장학기금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약 5-6백만 달러를 기부해서 기술을 배우거나 기능을 숙달하려는 사람들에게 '직업-윤리 장학금'을 주었죠. 제가 찾은 후보생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은 우리 모두가 격려하고 싶은 종류의 직업 윤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알고 있는 게 무엇인가요?

만일 모든 노동자들이 단 일주일만 아프다고 결근을 해도 문명은 궤도를 이탈할 것이라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지만, 문명은 깨지기 쉽습니다. 노동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깨달음은 올바른 정신을 창조하죠. 셰익스피어의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얼마 되지 않는 행복한 몇 명의 끈끈한 형제들.” 저는 그 정신을 건설현장의 일꾼들, 청소부, 공장 직공들에게서 발견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저앉으면 세상을 돌리는 바퀴가 빠져버릴 거라는 것을 알고 있죠.

노동자와 관련한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일을 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즐기고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들은 “너의 열정을 따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정이라 ‘따라가기’엔 너무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열정을 그들 자신에게 불러온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아이들에게 직업의 만족을 얻는 비결은 첫째,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찾고, 그 다음엔 그 일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하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꿈의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저당 잡혀도 된다고 격려하면서 마치 그 직업이 행복을 결정지어주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천생연분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죠. 이 세상에 너를 위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고,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행복은 보장받은 거라는 생각이죠. 실제 연애에 있어 그런 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듯이, 실제 직업세계에 있어서도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티잡〉에서 우리는 오수 정화조를 청소하면서 일년에 억대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을 시청자들에게 소개했어요. 비록 다른 사람들의 분노를 뒤집어쓰면서 일하지만 자신의 일에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제가 그들에게 “일에 대한 만족을 얻는 비결은 무엇인가요?”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결코 “오수정화조를 향

한 저의 열정을 따랐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글쎄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면서 ‘무슨 일이 필요하지? 아하, 여기 있네.’ 하고 찾은 다음, 어떻게 그 일을 잘 해낼지 터득하고, 마침내 그 일을 즐기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열정을 따르는 것’과 ‘열정을 나에게 불러오는 것’의 차이입니다.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열정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의 꿈을 따르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기회를 따랐고 유용한 기술을 습득했으며 그런 후에 그 일에 대한 애정을 키웠습니다. 보통은 그 일을 잘 할 수 있게 된 다음에 말이죠.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만족은 기술, 직업윤리, 내가 누군지 아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가치들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줍니다. 〈더티잡〉을 통해 저는 행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당신이 옹호하고 있는 주장은 미국이 아닌 유럽과 다른 국가에서는 조금 더 보편적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과 스위스, 한국에서는 그들의 문화 속에 소명을 가진 직업을 열망하는 수준 높은 의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직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정의를 갖고 있으니, 직업학교와 실습 프로그램에 대한 더 큰 열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훌륭한 직업학교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윌리엄슨 칼리지, 뉴욕 하버 스쿨, 두비스키 커리어 고등학교 (탈라스 주 바로 바깥쪽), 그 외에도 아주 많지요. 직업학교는 용접이나 전기배선을 가르쳐줍니다. 문제는 홍보 부족이죠.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런 학교가 존재한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용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우리 사회는 용접으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용접은 연결 조직이죠. 용접이 없으면 모든 게 분리되어



떨어져 나갑니다. 4년 전쯤에 한 여성이 용접으로 '직업-윤리 장학금'을 신청했어요. 우리는 그분을 훈련시켰고, 6개월 후에 그분은 직장을 구했죠. 그 후에 그분이 배관 하나를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원래 두 개였던 배관을 아주 깔끔하게 하나로 용접한 거였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용접된 배관과 감사인사를 적은 쪽지를 우편으로 받았을 때, 전체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물리적 세계와 다시금 연결되고자 하는 열망에 관한 것이라고요.

단절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다시 연결될 수도 없어요. 그게 저한테 일어났던 일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보이스카웃을 하면서 흥미롭게 여겼던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더티잡> 초기 몇 회가 저의 눈을 뜨게 해줬죠.

그 프로그램이 더 확장된 목적을 갖고 있었다면 사람들에게 육체노동과 사무직은 반대 개념이 아

나라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사실을 깨우쳐주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숙련도의 격차는 풀지 못할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찮게 여기는지를 반영할 뿐이죠.

2016년 마르코 루비오가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서, 우리는 용접공의 수를 늘려야 하고 철학자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을 때, 전 정말 많은 전화를 받았습시다. 사람들은 "우와! 바로 당신이 했던 말이네!"라고 했어요. 하지만 사실 제가 했던 주장은 그게 아니에요. 저는 어느 한 쪽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겐 칸트와 데카르트를 논할 수 있는 더 많은 용접공이 필요하고, 물이 새는 수도꼭지를 수리할 수 있는 더 많은 철학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



약함의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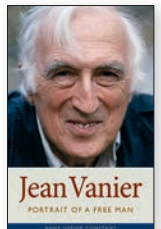
안 소피 콩스탕

라르슈 공동체의 설립자인 장 바니에가 2019년 5월 7일 향년 90의 나이로 별세했다. 정기 출판사가 최근 펴낸 그의 전기에서 발췌한 이 글에서 저명한 저술가이자 연약한 이들의 옹호자였던 장 바니에는 라르슈 공동체의 핵심 멤버인 지체장애와 지적장애를 가진 이들에게서 여전히 많은 것을 배운다고 말한다.

1 980년 장 바니에는 프랑스 북부 트로슬리에 있는 라르슈 공동체의 대표직을 그만두고 1년의 안식년을 가지기로 했다. 그리고 다음 해 11월, 바니에는 1978년에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 세워진 라르슈 공동체, 라 포레스티에(La Forestière)로 거처를 옮겼다. 그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었다.

이름처럼 숲 한가운데 자리 잡은 라 포레스티에는 빛이 잘 드는 테라스가 한가운데 있는 단층의 새 건물로 정원으로 난 커다란 돌출 창을 통해서 햇빛이 집안 전체로 쏟아져 들어왔다. 넓은 거실에는 벽난로가 있는데 커피를 마시거나 저녁 기도 모임을 했다. 작은 예배실에는 매우 낮은 단

안 소피 콩스탕은 2012년까지 파리 국립공예학교에서 가르쳤다. 장 바니에와 오랜 친구이며 저서로 《장 바니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도서출판 톨, 2018)가 있다. plough.com/jeanvanier



상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바닥에 앉아있는 도우미 무릎에 기대어 누워서도 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볼 수 있었다. 분위기는 매우 평온했다. 모두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공동체 전체가 느린 동작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많아서 서로 가까워지는데 여유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을 만지고 느낄 수 있다. 몸이 장애와 절망으로 뒤틀려 있는 에릭의 몸을 씻기는데도 시간이 충분하다. 뒤틀린 팔과 다리를 천천히 펴서 따뜻한 물의 온기를 느끼게 하고 씻기는 동안 에릭은 비누를 가지고 논다. 이곳에서는 루씨앙에게 밥은 먹일 때도 시간이 많다. 루씨앙은 천천히 음식을 맛보고 삼키고 냄새 맡으며 식사를 즐긴다. 이들의 불편한 몸은 부드럽고 세심하게 다뤄야 한다. 누군가 앙리에트 턱의 침을 부드럽게 닦아주고 다른 누군가는 자기 코를 마구 때리는 로익의 손을 살

며시 잡아준다. 이들은 로익을 부드럽게 제지하고 이런 행동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헤아려주며,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포레스티에에서는 누구나 몸의 언어를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은 부드러움과 연약함의 언어이다. 몸은 스포츠나 패션 세계에서는 추앙받다가도 병 걸리고 늙고 장애가 생기면 멸시받는다. 바로 그 몸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전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온전하지 않은 몸은 하나님의 빛이 더 쉽게 파고들어 올 수 있는 동일한 성전이다. 장 바니에는 복음이 모든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기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을
다시 벗어 버릴 수 있는 옷을 입는
그런 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가 성스럽게 되어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장 바니에

세상을 떠나기 장 바니에는 영국성공회 목사인 니키 검벨과의 인터뷰에서
1964년에 라르슈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회고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억압받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한 장애인 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80명의 장애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철저히 간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난폭한 행동과 아우성이 난무한 가운데 앉아 지내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때 이상하게도 저는 그들에게 끌리기도 하면서 거부감도 동시에 느꼈습니다.

후에 해군에서 전역한 후에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로 살고 싶었고 그래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설에서 나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식탁 둘레에서 생활했습니다. 장 보러 가고, 요리하고, 음식을 먹고, 설거지하고, 그다음 다시 장 보러 가고. 우리가 함께 사는 중심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네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마라.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 장애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복될 것이다.” 이것은 복음서에 숨겨진 복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는 것은 친구가 되는 일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에게서 오는
 사랑의 생명이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책이나 교사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생명이란 우리 옆에 누군가 존재하는 것이며
 사랑의 사귄 가운데
 한마음이 되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오롯이 주는 것입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한 나환자를 만나 자신의 몸과 영혼 속에 있는 새로운 부드러움을 발견할 수 있었듯이, 라 포레스티에는 장 바니에 인생에 있어 결정적인 계기였다. 그곳에서 그는 1년 동안 중증 장애인들의 생활 리듬을 경험했다. 일례로 17살의 에릭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걷거나 혼자 음식을 먹을 수도 없다.

4살 때 병원에서 버려졌는데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너무 갈구해서 가까이 지나가는 사람을 있는 힘을 다해 붙잡고 매달렸다. 장 바니에는 자신이 에릭에게 준 모든 사랑을 되돌려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니에는 에릭의 몸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밥을 먹이고, 마음을 달래주면서 그 아이가 사랑스럽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반대로 에릭은 장 바니에를 새로운 형태의 평화로 안내해 주었다. 바니에는 이렇게 썼다.

라 포레스티에에서는 매일 저녁 식사 후 에릭에게 잠옷을 입힌 후에 장애인과 도우미 모두가 함께 거실에 모여 30분에서 45분 정도 기도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바닥에 앉고 에릭은 내 무릎에 누워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나도 에릭과 함께 쉬는 누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말도 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 조금 한 자루를 먹어야 한다.” 우리는 함께 정말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 함께 산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장 가난하고 버림받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과 예수님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기쁨을 함께 축하하는 곳입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엄청난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많은 권력이나 돈이나 성공이나 지위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외부인들이 공동체에 와서 발견하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 알고 보면 복잡한 관계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 이곳이 하나님 나라이지만 우리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에는 또한 아픔과 어려움이 따르기에 애를 써야만 하죠.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오로지 사랑만이 필요한 사람들, 즉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 매우 특별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도 합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아예 말을 하지도 못하니까요.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거절당하고 버림받고 모욕을 당한 사람들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라는 외침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계시는 아주 가까이서 만납니다. 이것은 정말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

이 글은 2017년에 있었던 인터뷰 기록에서 옮기고 요약했다. 리키 겐벨의 허락을 받아 사용함. plough.com/vanier-gumbel에서 인터뷰 전체를 볼 수 있다.



요해지고 평온해집니다. 에릭도 편안한 모습으로 만족스러운 표정입니다. 이때가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내면의 평화를 다시 발견합니다. 하지만 에릭이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치고 어떻게 해도 진정되지 않고 어둠에 사로잡힐 때는 장 바니에도 내면 깊은 곳에 숨어있던 고통과 폭력성, 두려움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발견했다. 바니에는 자신의 내면 속에서 지금까지 교육과 지성의 가면으로 가리고 일과 활동으로 눌러왔던 혼란과 증오의 커다란 세계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한 불안은 바니에가 자주 생각하는 주제이다. 바니에는 그 불안이 인간 삶의 피할 수 없는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는 고뇌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는 농담조로 말한다. 이 불안은 인간 내면 은밀한 곳에 있다가 아주 사소한 상처에도 갑자기 튀어나와 폭력성을 드러낼 수 있다. 바니에는 지금도 여전히 자신 속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게 있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한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폭력을 발견하면서 장 바니에는 자신이 돌보는 지적장애인들과 자신 사이에 이전에는 전혀 몰랐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자신이 딛고 있었던 자신의 선함이라는 보이지 않는 받침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었는데, 창피한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경험하는 순간이었다. “내 본연의 실재,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내 본래 자신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훌륭하고 강한 어른인 척 성공하고 최고가 되려 하고 남의 칭찬을 추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에게 어떻게 보일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제 본래 모습인 아이로, 하나님의 어린아이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포레스티에는 장 바니에와 에릭-어른과 불쌍한 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의 놀이를 하는 두 어린아이’가 있을 뿐이었다. 이 놀이는 시인 삐에르 엠마누엘이 말했듯이 우리를 사랑이 넘치도록 샘솟는 ‘영원의 마당’으로 연결해준다.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영적 교감은 우리를 모아 하나 되게 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함께 머물게 한다. 에릭은 함께 가까워서 시간을 보내는 모든 사람 안에 평화와 연합의 신비를 일깨운다. 그는 함께 하는 것 이상 바라는 것이 없으며 누구도 군림하고 조종하고 이용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 바니에는 에릭과의 관계를 통해서 잘 알고 있었던 복음서 말씀을 마침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यो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것이 큰 자니라”(눅9:48). 바니에는 한 소식지에서 이렇게 회고한다. “가장 가난한 사람이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곤장 인도합니다. 그리고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이 가끔은 고통스럽게 우리 상처를 드러내면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그런 치유와 예수님과 아버지를 경험하는 것은 상호신뢰가 점점 커지면서 친밀해지는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이것이 라르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비입니다.” ➤



성화와 거울

러시아 보로네즈의 여성에 관한 사진글

폴라 레이더

러시아 정통 기독교인들은 종종 페미니즘에 관해 희미한 견해를 취한다. 1917년 여성이 투표권을 얻은 이후 러시아에서 여성의 권리가 향상되었지만 정교회 세계에서 여전히 여성은 제한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전통적인 견해는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현대 정교회 여성들의 목소리는 오늘 교

회에서 들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내 사진 기획 '성화와 거울'의 출발점이었는데, 나는 한편으로는 상징적인 성모 마리아의 이상과 오늘날 실제 러시아 여성들이 받는 대우 사이의 관계를 탐구했다.

나는 러시아 정교회 전통의 유산이 소중히 여겨지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러시아 남부 중심부에 있는 100만 인구의 도시 보로네즈에 집중하기로 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사진 출처는 모두 저인이

폴라 레이더는 독일 키엘에 사는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이자 영화 제작자이다. Polarader.com에서 더 많은 작품을 볼 수 있다.







성 마이클 교회의 가장 고령인 95세의 바르바라 집에서



성화 연수에 참여 중인 신학교 학생

나는 보로네즈의 많은 정교회 조직과 공동체에서 여성들이 지도자와 활동가로서 두드러진 활동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2003년 이후 정교회 사제들의 아내들은 오늘날 러시아에서 유일한 여성 협의회를 통해 보로네즈 교구의 삶을 새롭게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나는 성직자의 아내이자 평의회 의원인 타티아나 볼로드코에게 물었다(다음 쪽 사진).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꺼려요.” 그녀의 대답이다. “여자들은 너무 수동적이에요.”

물론 이런 소극적인 태도는 정교회의 겸손에 관한

태도를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다. 진정한 겸손은 기독교 생활의 꽃으로 내면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지극히 제한적인 전통으로 여성들을 교회 생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보로네즈에서는 여성들이 주저하지 않는다. 내가 촬영한 여성들 내면의 활력과 봉사하려는 욕구는 대단했다. 내가 사진에 담고자 한 것은 전통적인 정교회 여성성과 현대 여성의 쾌활함을 모두 갖춘 보로네즈의 여성들이었다. ➤



일요일 예배가 끝난 후 교회 안에서



여성평의회 의장 타티아나 볼로드코



부부가 함께 읽는 《성 하나님 결혼》

혹시 ‘금욕’이나 주창하는 책으로 오인하지 말길 바란다.
가장 아름답고 밝고 맑고 따뜻하고 친밀한 성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 말이다.

오지니

2019년 새해가 등실 떠올랐는데 편집장이 벌써 3분짜리로 우리 책을 소개하자고 했다. 마침 우리 부부도 새로운 창구를 통해 우리 책을 소개해 보고 싶은 의지가 충천했던 터라 덤석 하겠다고 했고, 2월 말에 첫 쟁기 팟캐스트를 개시했다. 《희망이 보이는 자리》가 그 첫 단추였다. 목소리를 다듬고, 안 되는 발음은 몇 번이고 방점을 찍고, 형광펜으

로 한 자씩 그어 가며 몇 회를 진행하다가 결국은 우리 남편이 합류하여 아무 말 대잔치로 시작해 책 소개, 음악까지 선보이는 이십 분짜리 방송으로 성장하였다.

누가 듣거나 말거나 우리 부부는 집안 이야기부터 공동체 이야기까지 보이지 않는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열흘에 한 번 꼴로 방송을 내보냈다. 그렇게 소개한 책과 우리 계간 쟁기, 단편 이야기까지 총 15편을

글쓰는 영국 다벨 공동체에서 살고 있다. 해지기 전에 용서하고, 해 뜨면 또 사랑을 시도해보며 아장아장 아이처럼 한 걸음씩 하나님 나라로 같이 걸어가는 기쁨이 솔솔하다. 보이스 블로그의 한국어 번역을 맡고 있다. 남편과 함께 팟캐스트 쟁기책방을 운영하고 있다. plough.com/bbang

35회나 이루었으니 참 뿌듯하다.

이 쟁기책방으로 인해 가장 덕을 본 사람은 우리 부부다. 둘이 티격태격 얼굴 붉히는 일이 있어도 “오늘 쟁기책방 해야지?” 하면 입을 비죽 내밀면서도 고개를 끄덕거리게 된다. 무슨 책을 소개할 건지, 어떤 부분이 감동적이었는지, 어떤 말을 서두에 할 건지 대화를 트고, 마이크를 켜 놓고 농담을 늘어 놓다 보면 서운한 감정이 다 날라간다.

우리가 함께 읽은 책 중에 하이라이트를 꼽으라면 《성, 하나님, 결혼》이다. 올해로 23주년된 결혼을 전쟁처럼 치른 우리 부부는 네 번이나 이 책을 소개하면서 무척 할 말이 많았다. 사실 크리스토프의 글은 쉽지만 바로 정면돌파를 하기 때문에 선불리 읽기가 어렵다. 우리 부부에게 서로에 대한 악감과 음침한 그늘이라도 있다면 소리 내서 읽기 어려운 책이다.

열심히 기도해라 큐티해라 부부 관계가 좋아진다고 변하게 장담하지 않는다. 이제 고인이 된 저자 크리스토프와 아내 버레나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초대교회처럼 살길 원하는 브루더호프 교회 공동체의 목사였다. 우리 부부도 그분들을 통해 공동체 생활에 첫걸음을 디딜 수 있었다. 이 교회 공동체에서 장애 아이들을 낳은 우리 부부는 이분들을 통해 ‘목도 제대로 못 가누며 경련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들였다.

혹시 여기까지 읽고서 ‘금욕’이나 주창하는 책으로

오인하지 말길 바란다. 가장 아름답고 밝고 맑고 따뜻하고 친밀한 성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 말이다. 우리의 천진난만한 어린 시절은 성에 대한 왜곡된 경험으로 철저히 파괴된다. 어떻게 다시 주워담을 수 있을까? 이 책을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한다.

우리 부부가 경험한 치유의 웃음을 나누면서 지은이의 아내가 한국어판 출간에 맞추어 쓴 편지를 인용한다. 두 사람은 평생을 동행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벗이 되었다. 그들은 우리 곁에 없지만, 그들이 남긴 사랑 이야기는 삶에서 계속되고 있다. 책 말미에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부록으로 담겨 있다.

한국 젊은이들에게,

결혼은 중요한 일입니다. 결혼에 시간을 들이세요! 결혼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평생하는 헌신이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 저와 크리스토프는 지난 51년 동안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2018년 5월 15일

버레나 D. 아놀드

마음에 남은 문장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의 크나큰 책임은 모든 구성원 사이에 순결한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날마다 싸우는 것이다(엡 5:3-4). 책임을 지고 서로 지지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만 순결을 위한 싸움은 정의와 공동선을 위한 싸움과도 손을 맞잡아야 한다. 다른 이가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에 무감각하다면 진정한 마음의 순결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약 1:26-27).

순결은 성적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웃이 굶주린 줄 알면서 음식을 내주지 않고 잠자리에 드는 것은 자기 마음을 더럽히는 일이다. 그래서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음식물과 물건과 힘뿐 아니라 지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포함하여 자기들에게 있는 것을 모조리 모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위해 하나님에게 드렸다. 그들은 마음과 영혼이 하나였으며, 모든 것들을 공유했기에, 동료애로 하나가 되어서 온갖 형태의 악과 싸울 수 있었다. (본문 77-78쪽)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 《성, 하나님, 결혼》, 비아토르, 2019

파리의 마더 마리아

제이슨 랜셀

“**몽** 파르나스 대로를 따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인도 위에 놓여진 한 카페 테이블 위에는 맥주 한잔이 있었고 그 곁 뒤로는 수도복을 갖춰 입은 한 러시아 수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수녀에게 가까이 가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수석 대주교 안소니는 1932년 경 파리에서 있었던 마리아 스코브소바와의 첫 만남을 이렇게 회상했다.

마더 마리아는 1891년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에서 태어났으며, 엘리자베타 필렌코라는 세례명을 받았다. 그녀가 십대였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일을 계기로 그녀는 무신론자가 되었다. 어머니와 함께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거처를 옮긴 후 사회주의자들의 모임에 들어갔으며 18살에 볼셰비키의 핵심 일원이었던 드미트리 쿠즈민 카라바예프와 결혼을 하게 됐다. 하지만 그들은 불과 3년만에, 첫 아이를 출산하기 직전에 헤어졌다.

인정받는 시인이 된 엘리자베타는 행동은 없고 끝없는 이론들만 쏟아내는 급진주의자들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 환멸을 느꼈지만, 사회정의를 향한 열정만은 잃지 않았다. 여전히 무신론을 지지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런 열정은 점점 예수님께 돌아가게 만들었다. 그녀에게 예수는 억압을 당하면서도 다른 이들을 위해 장렬히 죽은 이로 여겨지게 되었다.

1917년에 일어난 러시아 혁명은 공산주의자들인 붉은 군대와 보수주의자들인 백군의 격렬한 싸움과 함께 시작되었다. 붉은 군대가 점령했던 한 마을의 부시장이던 엘리자베타는 백군에게 붙잡혀 혁명주의자라는 죄명으로 기소되었으나, 인정 많은 판사 다니엘 스코브소브 덕분에 사형을 면할 수 있었다. 재판이 끝난 후 그녀는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그를 찾았고 몇일 후 그들은 결혼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볼셰비키 당원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러시아를 떠나 파리로 이주하게 됐다.

1926년, 엘리자베타의 어린 딸 아나스타시아가 죽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을 간호하면서 마침내 영원의 깊이와 희

개의 의미에 대해 어렵풋이나마 알게 되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나는 이제 진실되고 순수한 길을 원한다. 삶에 대한 믿음으로 인한 것이 아닌 죽음을 정당화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세상 어디에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보다 더 위대한 말은 없을 것이다. 그것이 예외없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면 말이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혐오와 부담뿐인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

같은 해, 엘리자베타는 두 번째 남편과 헤어지고 사회 사업에 전념했다. 6년 후 그녀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교회 수녀로 살기로 서약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행동없이 이론으로만 무장했던 좌파인들에게 환멸을 느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영적인 부분에만 관심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분노를 갖게 되었다. “경건, 경건. 그럼 산을 움직일 만한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일기에 적었다.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그녀는 이른바 ‘세상 안에서 수도원’이라는 집 없는 여성들을 위한 집을 만들었다. 공동체가 자람에 따라 마리아는 동료 수녀들에게 “각 사람은 세상 안에 성육신 된 하나님의 모습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들의 소명은 단순히 ‘전심을 다하여 주는 것’이라고 자주 상기시켰다.

1940년 나치 군대가 파리를 점령하자 마리아는 유대계 파리인들에게 위조 서류를 제공하는 한 지하 단체에 참여했고, 1943년 체포되어 라벤스부르크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다. 동료 수감자들에 따르면, 그녀는 정기적으로 다른 여성 수감자들을 격려해주기 위한 모임을 만들고 자신의 건강을 챙기지 않고 배급 받은 식량을 자주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1945년 성금요일, 그녀는 다른 병든 수감자들과 함께 가스실로 끌려갔고, 그 다음날인 성토요일, 저 멀리 붉은 군대가 진격하며 쏘는 총성이 들리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다. ➤

제이슨 랜셀은 계간 <쟁기>의 ‘선구자들’ 꼭지에 그림을 그린다. 맞은 편 마더 마리아의 초상화도 그의 작품이다. 마더 마리아 스코브소바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다음 책을 참조 Mother Maria Skobtsova: Essential Writings, ed. Jim Forest (Orbis, 2003).



경건, 경건, 그런데 산을 움직이는 사랑은 어디에 있나요?



러셀 베인, 호수의 가을

“사랑의 부름을 들어라
이 소명의 목소리를 . . .
빨리, 지금, 여기, 지금, 항상 –
온전한 단순함을 요구하고
모든 것을 바치라고 한다
그러면 잘 될 것이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T. S. Eliot의 시집 “Little Gidding”에서

계간 쟁기

새로운 세상을 위해 땅을 일군다

www.plough.com/ko

쟁기출판사

Walden, New York, USA
Robertsbridge, East Sussex, UK
Elsmore, NSW, Australia